

연 상 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음악 감상 교육에서 20세기 음악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방 유 진

음악 감상 교육에서 20세기 음악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

연 상 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방 유 진

인 준 서

방유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연 상 춘 ⑩

심사위원 현 경 실 ⑩

심사위원 김 미 숙 ⑩

2006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 감상 교육에서 20세기 음악의 활용에 관한 연구

방
유
진

논문 개요

20세기 이전의 음악은 조직화된 음을 재료로 하여 이것을 연결 진행시킴으로써 여러 양상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이라 정의된다.

그러나 190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음악의 정의에 대한 규명은 희미해진다. 물론 그 이전의 음악의 정의로 풀이되는 음악들도 계속 생산되지만 예술 사조의 급변과 함께 음악에서도 여러 새로운 시도가 나타남으로써 20세기 음악은 그 이전의 정의를 넘어서게 되었다.

본 논문은 감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존에 존재하던 형식과 틀에 귀속된 조성음악에서 20세기 음악의 열려있는 개념을 이해하게 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음악적 사고의 확장을 도모하도록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20세기 음악의 개관과 음악 감상의 개념, 음악 감상 교육의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수업지도안에 활용할 곡 선정의 배경 및 선정 이유를 살펴보고 곡선정의 제한점을 언급하였다. 그 후 이것을 토대로 6시간 분량의 20세기 음악 감상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총 6시간 분량의 지도안은 찰스 아이브스(Charles Ives, 1874~1954)의 『대답 없는 질문(The Unanswered Question)』, 알반 베르크(Alban Berg, 1885~1935)의 『서정적 모음곡(Lyrische Suite)』, 벨라 바르톡(Béla Bartók, 1881~1945)의 『미크로코스모스(Mikrokosmos)』, 죄르지 리게티(György Ligeti, 1923~2006)의 『아트모스페르(Atmosphères)』, 필립 글래스(Philip Glass, 1937~)의 『해변의 아인슈타인 중 Knee 5(Knee 5 from Einstein on the Beach)』,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의 『4분 33초(4' 33")』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거부감에서 벗어나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 음악 교육 현장에서는 20세기 음악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과 체계화된 지도안을 토대로 활용
한다. 또한 20세기 음악에 대한 연구와 그에 관
되어져야 하겠다.

목 차

참고문헌	
ABSTRACT	

논문개요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고찰	2
3. 연구의 방법	6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7
II. 본론	8
1. 이론적 배경	8
1) 20세기 음악의 개념 및 개관	8
2) 20세기 음악의 주요 흐름	9
3) 음악 감상 교육의 이론적 배경	16
2. 수업지도안 작성	18
1) 찰스 아이브스 『대답 없는 질문』	22
2) 알반 베르크 『서정적 모음곡』	34
3) 벨라 바르토크 『미크로코스모스』	43
4) 쇠르지 리게티 『아트모스페르』	63
5) 필립 글래스 『해변의 아인슈타인 중 Knee 5』	71
6) 존 케이지 『4분 33초』	88
3. 평가	103

표 목 차

<표 1> 『대답 없는 질문』의 작품 구조	26
<표 2> 『미크로코스모스』 125번 형식 구조	55
<표 3> 『미크로코스모스』 126번 박자의 순환에 따른 특징	57
<표 4> 『미크로코스모스』 151번 7개의 리듬패턴	59
<표 5> 『해변의 아인슈타인 중 Knee 5』 전반부 패턴의 변형	82
<표 6-1,2,3> 『해변의 아인슈타인 중 Knee 5』 후반부 형식 구조	84
<표 7> 지도안에 활용된 6개의 감상곡의 교육적 특징	105
<표 8> 2, 3, 4, 5차시로 수업 지도 시 효과적 과정	106

그 립 목 차

<그림 1~8> ebs <지식채널 e> ‘아버지의 아들, 찰스 아이브스’의 주요 장면	29~31
<그림 9> 『아트모스페르』 22개 음향복합체들의 전체 흐름	67
<그림 10-1> 모리스 루이스 『이입』	76
<그림 10-2> 프랭크 스텔라 『기저 6마일』	76
<그림 10-3> 댄 플래빈 『V. 타틀린을 위한 기념비』	76
<그림 11-1> 도널드 저드 『무제』	76
<그림 11-2> 엘스워드 켈리 『휴스턴 3연작』	76
<그림 11-3> 칼 앙드레 『81 CuFe』	76
<그림 12> 백남준의 『영화를 위한 참선』	94
<그림 13> 백남준의 『바이올린 독주』	94

<그림 15> 백남준의 『존 케이지』	
----------------------------	--

악 보 목 차

<악보 1-1,2,3,4> 『서정적 모음곡』 1악장의 기본음	
<악보 2> 『미크로코스모스』 125번 1~4마디	
<악보 3> 『미크로코스모스』 126번 1~4마디	
<악보 4> 『미크로코스모스』 151번 1~4마디	
<악보 5> 테리 라일리의 『C 장조』 중 16개의 패턴	
<악보 6> 『4분 33초』 지시악보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과 교육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¹⁾ 이것은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 수록된 음악 교육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다양한 음악적 경험일 것이다.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통하여 계발된 풍부한 음악성은 학생들의 음악적 안목과 창조적 표현 능력을 길러주며 바람직한 가치관을 발달시킨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개개인의 음악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20세기 음악이 갖고 있는 창의성과 실험정신 등을 통하여 학습하는 것이 있다.²⁾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20세기 음악은 음악 교육에 있어서 경시되어서는 안 될 분야이다. 학생들은 현재와 미래의 음악의 주인공들이다. 작곡가로 연주자로 혹은 감상자로서 음악을 생산하고 소비할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교과서에서의 비중과 교사의 수업 실제에 있어서 20세기 음악은 매우 적은양의 지면과 시간만을 할애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세기 음악은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들의 관심 부족으로 감상 교육을 통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생의 관심 부족으로 실제 수업에서 지도하는 경우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 방안, 즉,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론에 제시된 6시간의 20세기 음악 감상 수업은 학생들의 음악적 감상의 지평을 확대하여 낯선 음향에 대한 두려움과 낯선 음악적 사고를 가지게 하는 것이 본 6차시 수업의 주요 목적이다.

기존의 조성 음악 감상 중심의 음악 수업에 비하여 20세기 음악을 수업 시간에 접하게 함으로써 바로크, 고전주의 음악의 전부가 아님을 알도록 하고 나아가 20세기 음악의 시도들이 있었고 그로인해 생긴 여러 사조들을 소개하고 있던 음악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선행 연구 고찰

20세기 음악을 교육 과정에 활용한 연구는 조지프 로버트슨³⁾ 등 음악 교육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지프 로버트슨은 몇몇의 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강지영³⁾은 20세기 음악을 수업 시간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20세기 음악을 활용하였다. 20세기 음악의 특성을

된 20세기 음악의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수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그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20세기 음악을 지도함에 있어 교사의 역할을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교과서 안에서 다루어지는 20세기 음악이 1950년 이전의 음악만을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김현옥⁴⁾은 20세기 음악 기법을 적용한 창작 수업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0세기에 사용된 작곡 기법 중 불규칙박, 5음 음계, 12음 기법, 톤 클러스터 기법, 프리페어드 피아노⁵⁾, 우연성 음악 등을 활용하여 재량 활동을 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에 따르면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창작 능력 향상을 비롯하여 창작한 기법에 대한 이해력 증진과 기보력 향상, 낯선 음악에 대한 창작 작품을 만들려는 의지와 애착이 향상되었다. 또한 그동안 접하지 못하였던 20세기 음악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그리고 음악에 대한 자신감과 성공감이 향상되었다.

박남예⁶⁾는 감상 교육에서 20세기 음악 활용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예술사적 배경과 흐름을 살펴보고 20세기 음악을 활용한 감상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20세기 음악을 도입한 음악 감상 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바꿀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 하였다. 또한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교육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황은혜⁷⁾는 20세기 음악 감상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20세기의 역사

4) 김현옥, "20세기 음악 기법을 적용한 창작 수업의 효과-초등학교 4학년 재량 활동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5) Prepared Piano(조작된 피아노)는 보통 피아노 줄 사이에 고무, 나무 조각, 금속, 종이 등을

적 흐름과 음악 교육에서 감상이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하고, 20세기 음악 감상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중학교 음악교육의 맥락에서 20세기 음악의 특징을 표현한 작품 등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감상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세기 음악의 시대적,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은경⁸⁾은 음악 감상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감상 지도안을 개발하고, 현재의 일방적인 들려주기 형식의 감상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재량 활동을 통한 감상 수업의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발표 및 토의 시간 등을 넣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최종임⁹⁾은 음악 감상 교육에서 20세기 음악 활용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20세기 음악의 개념을 정리하고 지도의 필요성 및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20세기 음악 감상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음악 감상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 자신의 음악적 소양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교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음악 수업을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20세기 음악과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20세기 음악의 배경을 이해하고, 20세기 음악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20세기 음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7) 황은혜, "20세기 음악 감상 교육에 대한 연구-중학교 음악 감상 지도안을 중심으로-",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8) 이은경, "음악 감상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감상 지도안 개발을 위한 연구",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가까이 접하려는 태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손은정¹⁰⁾은 고등학교 현대 음악 지도 방법 연구를 통해 감상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대 음악이 지닌 음악 표현의 다양성을 접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모두 고정된 사고와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탐구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사는 현대 음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도입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서 얻어지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과서에서 20세기 음악부분은 1950년 이전의 음악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매우 적어 교사의 20세기 음악에 대한 교육적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20세기 음악을 활용한 창작 수업은 학생들의 창조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20세기 음악에 대한 흥미와 음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20세기 음악을 활용한 감상 교육은 학생들의 가치관의 폭을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꼭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넷째, 20세기 음악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시대적, 역사적 배경의 이해를 바탕으로 감상을 하게 되면 학습 효과는 증진된다.

다섯째, 교사는 20세기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여 20세기 음악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20세기 음악의 개념과 20세기 음악의 흐름을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음악계가 수업실제에 활용하게 될 감상곡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바르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감상곡을 선정함에 있어 1900년대 초반의 대표곡을 대표하는 곡으로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셋째, 학생들이 20세기 음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사조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감상곡을 선정하여 많은 곡으로 선정하여 지도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넷째,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과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차시(2차시, 6차시)에 걸쳐 창작 수업으로의 연계수업을 실시한다.

더불어 특정 사조의 설명에 있어 다른 예술과의 연관성을 강조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증진시키고 사조의 바른 이해를 이끌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음악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시대적 배경을 정리하고 전체적인 개관을 통해 20세기 음악의 흐름을 파악한다.

둘째, 20세기 음악계에 나타난 다양한 주요 흐름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조사를 통해 알아본다.

셋째, 음악 감상의 개념을 정리하고, 감상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II. 본 론

감상 수업지도안을 제시한다.

수업지도안의 모형을 틀에 맞추어 짜고, 부족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뒤에 학습 자료와 참고 자료로 구분지어 보충하였다. 그 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를 평가 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후 다음 작품으로 진행한다.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20세기 전반(全般)에 걸쳐 새로운 음악적 시도로 음악계를 이끈 작품 중 6명의 작곡가의 곡을 선택하여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다. 20세기 음악의 다양한 시도들을 다루려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도안을 만들 수 있는 6곡을 활용하였다.

상업적으로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대중음악 분야는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발생 초기에는 대중적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장르 파괴와 장르 혼합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현대의 대중음악 분야 속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재즈 장르도 연구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그 밖에 20세기 각국의 민속 음악과 한국의 현대 음악은 다루지 못한 점을 밝힌다.

본 논문의 6차시에 걸친 수업지도안은 본 수업지도안만으로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여러 악장의 곡이나 전곡의 길이가 긴 곡의 경우에는 한 악장 혹은 몇 곡을 선택하여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1. 이론적 배경

1) 20세기 음악의 개념 및 개관

21세기의 시작에 서 있는 오늘날 <20세기 음악적 의미로서의 현대 음악>이 아닌, 지난 세기의 구하고 여전히 '20세기 음악'은 '현대 음악'의 동 20세기 현대 음악은 1900년대 초에 작곡되기 기법으로 작곡된 현재의 음악까지로 정의된다. 방향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첫째, 20세기 서양 음악은 그 이전의 음악 전 었다. 물론 서양 음악 역사상 소위 '신음악/ 새 혁명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 등에 걸쳐 음악은 당시 기존의 양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점에서 서양 음악사는 새로움의 추구의 연속이 20세기에 나타난 새로움은, 그동안 지속되었던 신을 흔들 정도로 급격한 것이었으며, 극단적으 지도 위협하는 확장된 음악개념을 가져왔다. 즉 양식과 음악관은 20세기에 들어와 그 어느 시기 것이다.

둘째, 전통과 근거의 다점화 20세기 음악의

추구보다는 각각의 작곡가들에 의해 개성 있게 전개되었고, 그 결과 <다양성>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낳았다. 20세기 상반기에 나타난 <표현 주의>, <무조 음악>, <12음 음악>, <신고전주의>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총렬 음악>, <전자 음악과 컴퓨터 음악>, <우연성 음악>, <음향 음악>, <미니멀 음악>등의 다양한 경향이 보여주듯이, 20세기 음악의 공통점이라면 일반적인 공통점이 없는 것으로,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¹²⁾

이렇듯 20세기 음악은 변화와 다양성으로 대두되는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기존의 선법과 조성의 지배 아래 있던 음악의 뿌리에 큰 충격과 혁신을 가져 오게 되었다.

2) 20세기 음악의 주요 흐름

표현주의와 무조 음악은 1900년대 초 음악의 주요 흐름으로 등장한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대상으로부터 받은 감정과 느낌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살아간다. 반면 자신의 내면의 본질적 실체에 대한 고뇌는 쉽게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그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해 왔다. 표현주의는 이러한 작가의 억압된 내면의 주관에 대한 표현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예술 사조이다. 이러한 작가의 깊은 내면의 표현은 20세기 초 활발히 시도되었는데 미술에서는 추상화의 선구자이며 따뜻한 추상으로 잘 알려진 칸딘스키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음악에서의 표현주의는 아놀드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로부터 시작되었다.

현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쇤베르크에게서 나타난다. 내면의 강렬함을 추구하는 표현주의 음악은 이나 척도에 전혀 맞지 않는 ‘새로운 이상’을 형태나 인습을 타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¹³⁾

미술이나 문학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표현주의 음악은 인간 내면세계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겪는 심리적 갈등, 불안, 두려움 그리고 잠재의식을 표현하는데, 기존의 것에 반항하는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찌그러진 추한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다.¹⁴⁾

표현주의 음악의 가장 큰 성격은 무조에 있다. 칸딘스키의 회화에 비교한다면 무조 음악은 칸딘스키의 추상화와 동일선상에 놓고 이해할 수 있다. 무조 음악은 전통적으로 부정하고 ‘조’와는 다른 구성 원리를 찾는 체계 안에서 존재하던 ‘음’의 주종 관계의 틀을 깨뜨렸다.

무조 음악은 쇤베르크를 비롯하여 그의 제자 알반 베르크(Alban Berg) 등의 제2비엔나 악파를 중심으로 20세기 작곡가들에게 폭넓은 영향을 끼쳤다.

제2비엔나 악파는 1920년대 들어 무조 음악의 기법으로 발전시켰으며, 이 기법은 1950년대

13) 상계서, p. 42

미치며 총렬 음악으로 전개되었다.

12음 기법이란 한 옥타브 안의 12음을 반복 없이 조직적으로 배열하여 만든 기본 음렬과 거기서 파생된 음렬을 사용하여 작곡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무조 음악에서 우연적으로 드러나는 조성의 흔적을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즉, 무조 음악을 철저히 드러내고자 하는 쇤베르크의 연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12음 기법이란 평균율적으로 조율된 음계의 한 옥타브 안의 12개의 음을 조직적으로 배열하여 곡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12음이 반복 없이 한번씩 사용된 '기본음렬'과 여기서 파생된 음렬을 사용하여 작곡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우선 작곡가는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열두 개의 음을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때 각각의 음들은 단 한번만 선택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의 나열을 '기본음렬(Original)'이라 한다. 이 기본음렬에서는 '전위(Inversion)', '역행(Retrograde)', '역행전위(Retrograde-Inversion)'의 3가지 선율적 변형이 가능하다. '전위'형은 기본음렬의 선율 진행을 반대로 변형하는 것으로, 기본음렬 진행이 도(C)에서 미(E)로 장3도 상행하면 전위형은 도(C)에서 라플랫(A \flat)으로 장3도 하행하는 방식이다. '역행'은 기본음렬의 진행을 거꾸로 돌려놓은 것과 같다. '역행전위'는 역행음렬을 다시 전위시킨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네 가지 음렬은 각각 시작되는 음에 따라 12가지의 변형이 가능하므로, 하나의 기본음렬에서는 총 48개의 음렬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 구성된 음렬이란 조성적 화성의 규범성을 대신 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주는데, 이로써 작품의 통일적 원리는 고도로 조직화된다.¹⁶⁾

20세기 초 무조 음악과 12음 기법이 신음악의 한 줄기라고 한다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통에 대한 재관심이 음악적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새로운 고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사용되었다.¹⁸⁾

신고전주의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거대한 반감으로 인해 20세기 초·중반에 나타난 양식적이고 명확한 구조와 형식을 가진 음악으로 회귀한 신고전주의의 반(反)낭만적 성향은 고전주의적이었다. 하지만 각각의 곡들은 작곡가의 개성적인 작품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나타난 음악사의 변화 양식의 전면적인 거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구조주의 음악(total serial music)에서 발견된다. 전후 젊은 세대의 음악 양식은 전통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양식에 의해 크게 활성화 되었다. 음높이, 음길이, 음색, 리듬, 성 요소를 음렬화 시키는 총렬 음악은 지금까지의 음악사 가운데 가장 수학적 사변에 접근하게 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¹⁹⁾

즉, 12음 기법이 '음'이라는 소재만을 음렬화 한 음악은 물론이고 리듬, 다이내믹, 음색 심지어 스타일까지 모든 요소들을 음렬화 하는 음악이다. 이 음악들은 특이하게 도식화되어 작곡자 자신만의 언어로 사용되었다. 대표적 작곡가로는 총렬 음악의 선구자

17) '신고전주의' 음악에서 '고전과의 연관'은 단지 고전 음악, 바로크, 중세 등 낭만 시대 이전에 나타났던 그

시앙(O. Messiaen, 1908~1992)과 함께, 블레즈(P. Boulez), 슈톡하우젠(K. Stockhausen), 노노(L. Nono)등이 있다.

전자 음악과 컴퓨터 음악 또한 이 시기에 발전하게 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널리 이용할 수 있게 된 도구와 매체에는 자기 테이프, LP 레코드, 멀티 트랙 녹음을 포함하는 향상된 리코딩 기술, FM 라디오, 다양한 신호 발생기와 변조 기구, 그리고 주파수 대역별 사운드 재생 등이 있다. 새로운 음악을 창안하고 보급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²⁰⁾

‘순수’ 전자 음악 (pure’ electronic music)은 스피커가 전기 발생기로부터 나온 전자자기 충격으로 소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스피커를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다.²¹⁾ 즉, 전자 음악이란 전자적으로 발진되는 음을 소재로 하여 만들어지는 음악을 말한다.

전자 음악의 대표적 작곡가로 카를하인츠 슈톡하우젠(K. Stockhausen)이 있는데, 그는 1951년 독일 쾰른에 위치한 북서 독일 방송국에 설립된 전자 음악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종류의 전자 음악을 실험하고 작곡하였다. 이후 여러 나라에서 전자 음악 스튜디오가 만들어졌고, 점차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컴퓨터 음악이란 컴퓨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한 음악, 즉 오로지 컴퓨터가 작곡하고 그 자체에서 소리를 얻은 것만이 아니라, 전자 신디사이저가 음을 만들어내고 컴퓨터는 그것을 제어하는 방식의 음악에까지 폭 넓게 적용되고 있다.²²⁾

불확정성 음악(Indeterminacy music)이라고도 불리는 우연성 음악(Chance music)은 미국의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작곡가가 어떤 작품에서 아무리 정교하게 의의의 개성 및 그 당시의 환경요인 및 감정 상태의 확정적 요인이 끼어들게 마련이다. 우연성 음악은 악운곽을, 또는 개략적인 음악 아이디어만 제시시의 우연적 즉흥성에 맡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연성 음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작곡가가 영감에 의하거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자아를 아 빛는 전통적 음악 개념에서 벗어나, 작곡을 목적 의도나 사상, 감정을 배제하고, 작곡가의 통현상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추구한다.

또 다른 방향은 악곡의 부분 및 전체 구조가 서처럼 가능한 한 정확히 표기하는 종래의 작곡법이 분이 또는 전체의 나열과 진행에서 연주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매번 곡이 다르게 된다.

개별적 음들이 음악의 기본적 요소가 되는 음향음향 음향을 작곡의 대상으로 삼는 작곡법인 음향음향 작곡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에 많은 작곡가들이 전자 음향을 다루면서 이를 일반적 악기로 옮겨온 음향을 일반 악기로 옮기는 이 과정에서 변함없이 세하게 변하는, 이른바 음향 돛자리를 형성하게 된 특징이 된다. 매우 미세하게 음향의 변화를 가져오는 스테리오 음악 역시 음향 음악의 일종인데 이 음악의 계로 끌어올린다. 이러한 음향 음악의 대표적

1923~2006)와 펜데레츠키(Krzysztof Penderecki, 1933~) 등이 있다.

최소한의 조형 수단만으로 전체를 제작하는 회화나 조각을 일컫는 미니멀 예술(Minimal Art)로부터 유래²⁵⁾된 미니멀리즘은 패턴과 반복만이 존재하는 예술이다.

미니멀 음악의 일반적 특징은 소재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시간 개념을 확장하여 목적이 없고, 주관성을 배제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음악 내의 어떤 극적 구조도 발견되지 않으며, 음악은 지극히 순수한 소리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인 음악으로서 ‘반복’ 속의 ‘느린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²⁶⁾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다는 경제 원칙에 입각해 있는 미니멀리즘은 문자 그대로 절제와 응축 그리고 경제성을 가장 핵심적인 서술 전략으로 삼는다. 그래서 미니멀리즘 작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생략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자 한다.²⁷⁾

미니멀 음악은 제한된 음악 수단을 패턴화 하여 반복 기법을 통해 끊임없이 지속하는 연장된 음악이며 어떠한 감정이나 정서를 담지 않은 비개성적이면서도 엄격한 작곡 방식을 취하였다. 즉, 작곡가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작품을 청취하는 대상의 주관과도 관계치 않는 객관성을 철칙으로 한다.²⁸⁾

25) 김문자, 외 4인,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심설당, 2001, p. 464

26) 이은영, “Steve Reich의 Drumming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적 특성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6

3) 음악 감상 교육의 이론적 배경

(1) 음악 감상의 개념

음악 감상은 음악의 미적 특성과 의미를 이해하고, 음악의 형성과 있는 음악적 요소들에 대한 의미를 지각하고 감응하는 것을 뜻한다.²⁹⁾

또 감상은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감각을 여 음악작품의 예술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주체 미하는 과정이다. 감상에는 음악작품을 단순히 지적 작용 이외에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을 비 지적 이해력이 있고 또 자신의 내부에서 적극적인 창조적 활동이 있다.³⁰⁾

(2) 음악 감상 교육의 필요성 및 의의

학교 교육은 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개개인의 성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의도 아래 적합한 경험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 성장과 인간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고 할 수

음악 감상은 모든 음악의 표현 능력의 발달

29) 석문주, 「교실에서의 음악 감상」, 교육과학사, 1999,

하는 능력이 없으면 가창이나 기악 연주의 선율이나 리듬적 반응도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음악을 음미하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감상 교육은 음악 교육의 근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상은 예술 작품의 미적 내용을 음미 향수 하는 하나의 체험의 과정이다. 따라서 단순한 음향 지각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형식의 파악, 내용의 체험, 질서와 가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올바른 감상 지도 방법이 요망된다.³²⁾

2. 수업지도안 작성

20세기의 새로운 음악적 흐름과 작품들을 공부하려면 먼저 어떤 부분이 이해되어야 할 부분은 학생들에게 생소한 예술적 사상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는가 하는 점이다. 더불어 수업 후 20세기 음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을 구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첫째, 각 흐름을 대표하는 감상곡을 선정할 때는 흥미로운 곡을 선택하였다. 각 사조를 대표하는 곡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사전 지식이 요구되는 곡은 전체적인 곡의 길이는 길더라도 악장이 분리되어 있는 곡에는 그 중 필요한 악장이나 소곡을 선택하여 구성된 베르크의 『서정적 모음곡』의 경우 한 장의 곡을 선정하였고, 『미크로코스모스』는 153곡 중 1곡을 선정하였다.

둘째, 작곡가와 그의 작품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다른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활동된 아이브스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4차시에는 20세기 음악의 흐름을 나타낸 그림 그리고 6차시에 활용된 베토벤의 생애를 다룬 영상물과 그림 등을 통해 작품과 작곡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대표적인

셋째, 특정 사조의 흐름의 이해를 위해 미술작품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4차시의 미니멀 음악을 학습할 때 1960년대 시대의 미술작품을 활용하여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대표적인

으로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흥미를 증진시켰다.

넷째, 두 차시(2차시와 6차시)에 걸쳐 시도된 창작 수업으로의 연계를 통하여 수동적인 감상 수업의 과정에 학생들 자신이 능동적인 수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격적인 수업지도안의 작성에 앞서 각 작품 혹은 작곡가의 음악사적 의의와 교육적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곡 선정 과정의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감상곡 『대답 없는 질문』의 작곡가 아이브스는 20세기의 새로움과 다양성으로 대두되는 음악사의 흐름에 문을 연 작곡가로 평가된다. 그가 1920년 이전에 감행했던 독자적인 작곡 기법의 실험들은 후에 20세기 전반의 음악적 흐름과 거의 일치한다.³³⁾ 일찍이 조성과 비조성의 경계를 두지 않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관점을 가지고 곡을 만들었다. 그의 1908년 작품인 『대답 없는 질문』은 음악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20세기 새로운 시대의 음악적 태동을 알리는 작품으로써 학생들에게 20세기 음악의 난해함 속에 내포되어 있는 ‘신음악’을 향한 마음을 알게 한다.

두 번째 감상곡은 베르크의 『서정적 모음곡』 중 1악장이다. 무조 음악을 전통적으로 연결시킨 베르크의 경향은 12음 음악에서도 계속되었다. 베르크에 있어서 12음 기법은 다른 음렬 작곡가들과 달리 음악적 사고의 통일적인 형식이 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12음 음악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제목의 『서정적 모음곡』이라는 작품을 내놓게 된다.

이 작품은 음악사적으로 무조성의 극단이 12음 기법으로 귀결되었을 때 개성적인 12음 기법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즉, 12음 기법을 사

용하면서도 완전 4도 및 완전 5도의 진행을 간 특유의 서정성을 표현해 내었다.

세 번째 감상곡 『미크로코스모스』의 작곡가에 걸쳐 채집한 방대한 양의 민속 음악 연구를 하면서 이 분야의 새로운 개척자로서 평가된다. 견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연구가와 피아니스트로서의 음악적 업적과 작곡하는 중요 작곡가들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며

『미크로코스모스』의 교육적 의의는 6권의 초보적인 것부터 연주회용의 난해한 것까지를 관성 있게 연습 혹은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도 20세기 현대적 기법을 시도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네 번째 감상곡은 리게티의 1961년 작품인 『음악사적으로 리게티의 『아트모스페르』는 20세기로 대두되는 20세기 중반의 음악계에 ‘음향화 방식을 제시하면서 당시 작곡가 및 평론가들이다. 이것은 기존의 음악 질서의 흐름을 무너뜨려 탄생으로 여겨진다.

교육적으로 리게티의 『아트모스페르』는 20세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1950년대 이후의 음악계의

악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감상곡이다.

다섯 번째 감상곡은 미니멀 음악으로 잘 알려진 글래스의 『해변의 아인슈타인 중 Knee 5』이다.

음악사적으로 미니멀 음악은 20세기 중·후반 여러 작곡가들에 의해 작곡되고 연주되었다. 항상 무엇인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음악계를 포함한 예술계에 미니멀리즘은 하나의 돌파구로써 충분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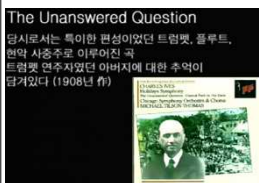
마지막 여섯 번째 감상곡 『4분 33초』의 작곡가 케이지의 음악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케이지는 음악을 ‘소리의 조직(Organization of Sound)’이라고 정의하면서 기존의 음악과 소음을 동일한 음악의 영역에 위치시켜다. 또 전통음악이 옥타브라는 제한된 음가 위주로 구성되어 음악을 계급화 시켰다고 비난하였다. 그의 주장은 만약 전통악기나 악보만이 종래의 음악 개념이라면 우리는 오늘날의 더욱 확장된 음악을 얻기 위하여 소음을 음악의 조직 속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는 서양 음악이 옥타브라는 제한된 음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반기를 들고,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 18세기 악기가 내는 소리만을 음악의 영역으로 설정하는 고정 관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전통 악기 대신 우리 주변에서 찾아지는 플라스틱이나 심지어 새털이나 장난감, 인형 등을 활용하여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연주하는 등 종래 음악의 정의를 폭넓게 해체시켰다.³⁴⁾

교육적으로 케이지의 작품 『4분 33초』는 학생들의 가지고 있던 음악적 테두리에 관한 기존의 고정 관념을 깨고, 나아가 예술의 개념 확장을 도모한다. 따라서 보다 넓은 개념의 예술적 사고를 하게한다.

1) 찰스 아이브스(Charles Ives, 1874~1954

Unanswered Question)』 (1908)

학습 단원	20세기음악 감상 (20세기음악 입문)		학습 주제	고등학교 1학년	
수업 목표	1. 아이브스의 음악 세계와 그의 작품 『대답 없는 질문』 (1908)의 주요 음악적 특징을 말할 수 있다. 2. 20세기 음악을 거부감 없이 수용하도록 감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에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상영 후 내용을 질문한다고 말한다. (질문-다큐멘터리 속에 언급된 아이브스의 곡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채널 e ‘아버지의 아들, 찰스 아이브스’를 보여준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스크린 프로젝터.(또는 프로젝션 TV) · 다큐멘터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자료 ② 참조.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여주던 중간(2'35")에 지금부터 삽입된 배경음악이 오늘 공부할 『대답 없는 질문』임을 알려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채널 e ‘아버지의 아들, 찰스 아이브스’를 감상한다. 			
	<p>학습목표 인지</p>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전개	곡의 특성 인지 및 발견	· 감상 후 위의 내용을 질문한다.	· 감상 후 선생님의 질문에 답한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브스와 그의 음악 세계에 관한 보충 설명은 학습 자료 ① 참조. · 『대답 없는 질문』의 보충 설명은 학습 자료 ③ 참조. · <표 1>은 학습 자료 ② 참조.
		· 다큐멘터리를 감상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하도록 유도한다.	· 감상하고 느낀 점들을 이야기 한다.	4	
		· 작곡가 아이브스와 그의 음악 세계에 관한 보충 설명을 한다.	· 작곡가 아이브스의 음악 세계에 대해 공부한다.	6	
		· 작곡가 설명에 이어서 아이브스의 『대답 없는 질문』의 특징을 설명한다. - 현은 조성적인 3화음을 매우 여러개 같은 속도로 연주하고, 트럼펫과 목관 그룹은 비조성적으로 간헐적인 진행을 보여준다. 즉, 트럼펫 선율이 질문을 던지면 목관 그룹이 반응을 하는 형식으로 곡이 진행된다.	· 『대답 없는 질문』의 특징을 파악한다.	8	
		· 이 때에는 <표 1>을 보여주며 설명한다.			
감상	· 위의 설명을 한 후 곡을 들려준다. 학생들 스스로 질문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곡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킨다.	· 곡의 특징을 생각하며 감상한다. (어디가 질문일까? 마지막의 질문에 목관 그룹의 반응은 왜 없는 것일까? 등)	6	· 감상할 곡의 CD와 오디오 준비.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정리	개념화	· 곡을 듣고 어떻게 느꼈는지 모둠별로 이야기 하도록 이끈다.	· 곡을 듣고 어떻게 느꼈는지 친구들과 토론한다.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 토론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게 되지 않도록 유의.
		· 모둠별로 토론한 것을 발표하도록 이끈다.	· 친구들과 토론한 내용을 발표한다.	5	
		-이와 같은 토론과 발표의 과정을 넣은 이유는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낯선 음악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음악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	평가	·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들으며 자신이 가졌던 느낌과 어떻게 다른지 또는 비슷한지를 스스로 정리하도록 유도한다.	· 발표한 내용을 들으며 자신이 느꼈던 것과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를 생각하고, 이 시간에 경험한 음악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며 나름대로 20세기음악에 입문한 소감을 되새겨 본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평가지 참조.
		·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이 시간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 평가지를 작성한다.	4	

독주 트럼펫과 목관 그룹의 각 부분의 시작 지점의 시간을 위에 표시하였다.

③ 『대답 없는 질문』의 작품 분석

우선 현악기 군이 G장조의 3화음으로 여리고 느리게 시작한다. 이 현의 진행은 곡이 끝날 때 까지 쉬 없이 지속된다. 처음 1분 17초까지는 이러한 현의 움직임만 계속되다가 트럼펫이 비조성적인 간단한 선율을 연주한다. 바로 이것이 질문인 것이다. 그러면 목관 그룹이 반응을 하는데 트럼펫과 마찬가지로 비조성적인 선율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목관 그룹의 반응은 대답이 없는 것에 대한 심리적 묘사이다. 이 트럼펫과 목관 그룹의 주고받음은 6번이 계속된다. 트럼펫은 처음의 선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에서 조금씩 변형되어 나타나고 목관 그룹은 처음에는 차분한 진행을 하다 반응이 거듭될수록 점차 짧은 리듬과 음의 고저의 빠른 변화 그리고 약간의 클러스터 기법 등 점차 어지럽게 진행된다. 그 후 현악기군의 조성적 진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펫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진다. 마지막 질문에서 조차 트럼펫 선율은 어떠한 반응을 포함한 대답도 들을 수 없다. 단지 현악기군의 G코드의 차분한 진행만이 정적을 깨울 뿐이다.

나. 참고 자료

현은 속도의 변화 없이 시종일관 ^①매울 쓰리에 여중현의 현악 『대답 없는 질문』 해설문 리는 <아무것도 알거나 보거나 듣지 않는 드루이드교도³⁵⁾들의 정적>을 묘사하는 것이다. 트럼펫은 ‘천년을 이어 온 존재에의 질문’을 읊조리고 그때마다 그것을 꼭 같은 음조의 목소리로 말한다. 그러나 플루트와 다른 몇몇 인간들에 의한 ‘보이지 않는 대답’에 대한 사냥은 점점 적극적으로 되고, 빨라지고, 소리가 높아진다.……(이들) 싸우는 대답 발견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허무함을 느끼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고투(苦鬪)했던 이유인 ‘질문’을 무시하기 시작한다. 이 발견자들이 사라진 후 ‘질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기되고, 저 넘어 ‘방해받지 않은 고독’에서는 ‘침묵’이 들린다.³⁶⁾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음악적인 기술에 한계를 느낍니다.”

지휘자는 내가 쓴 악보를 되돌려주었다.
또 다시 실패.
하지만 내 음악을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다.

내 아버지. ^② ebs <지식채널 e>의 ‘아버지의 아들, 찰스 아버지’는 소리를 수집했다.

35)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의 고대 켈트족의 종교 단원.

귀에 들리는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않았다.



마을 악단의 리더였던 아버지는 그 소리들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괴짜라고 했지만,
 나는 아버지의 음악이 좋았다.
 아버지의 음악은 나의 귀를 열어주었다.
 쉽지 않은 음악인생은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내 음악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이건 끔찍한 소음이군!”

내 음악은 세상에 통하지 않았다.
 낯선 불협화음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기대고 앉아
 명칭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

사람들의 무관심이 계속되었다.
 나에게 위로가 된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아들아,
 네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건 모두 맞는 것들이란다.

드디어
 사람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



음악 인생 40여년 만이었다.
 1946년 ‘제3교향곡’ 직접 지휘
 1947년 풀리처상 수상
 1951년 ‘제2교향곡’ 레너드 번스타인 지휘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찰스 아이브스는
 무조, 자유리듬, 비전통적인 악기편성,

서로 다른 박자를 겹쳐놓기 등
새로운 기법으로 20세기 현대음악을 이끈
혁신적인 작곡가로 평가된다.

1954년, 찰스 아이브스는
우주의 모든 소리를 담고자 했던
우주 교향곡을 미완으로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



(3) 평가지

학년

※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아이브스의 음악 세계와 그의 음악적 특징은

2. 감상곡 『대답 없는 질문』에서 '질문'에 사용

- ① 플루트와 트럼펫
- ② 트럼펫
- ③ 트럼본
- ④ 목관 그룹
- ⑤ 현악 앙상블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전개	곡의 특성 인지 및 발견	· 총 6악장으로 구성된 베르크의 이 작품의 전반적인 특징을 간략히 설명한다.	· 작품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5	· 베르크의 『서정적 모음곡』의 보충 설명은 참고 자료 ① 참조.
		-베르크의 『서정적 모음곡』의 전체적인 형식의 구성에서의 특징은 12음 기법이 사용된 악장(1악장, 6악장), 자유로운 무조성에 의한 악장(2악장, 4악장), 이 두 유형이 혼합된 악장(3악장, 6악장)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사용된 것이다. 사용된 12음 음렬은 12개의 음을 규칙 없이 사용하기도 하고 음정의 관계를 고려해 규칙을 적용해 만든 음렬을 사용하기도 한다. ³⁸⁾			
		· 잠시 후 들려줄 기본음렬을 흐름을 피아노로 연주해 보인다.(학생들이 각자 기본음렬을 찾으며 들을 수 있도록 음렬표를 만들어 나누어 준다.)	· 제시된 음렬을 찾아 보며 듣는다.	6	
		-실제 곡 안에서 기본음렬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므로 천천히 피아노로 들려준다. 그 후 실제의 빠르기로도 연주해 보인다.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전개	창작 및 발표	· 1악장의 기본음렬이 나오는 곡의 첫 부분을 다시 들려준다.(2회 반복)	· 기본음렬이 나오는 곡의 첫 부분을 다시 들어본다.	2	· 12음 음악을 만들 때의 유의점. ① 단선율 진행도 좋고, 2성 혹은 그 이상의 진행도 가능. ② 각 모듬별로 피아노를 조금이라도 다를 줄 아는 학생을 적어도 한 명 이상 배치할 것.(2성 진행 이상의 곡의 경우에 때에 따라서 연주 실력이 모자랄 수 있다. 이 때에는 두 명이 나와서 시연하도록 유도한다.)
		· 모듬을 나누어 각 모듬의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 피아노를 활용한 12음 음악을 만들도록 지시한다.(중이 12개에 음을 하나씩 적고 그것을 던져서 모듬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선택한 종이에 쓰여 있는 음으로 기본음렬을 만들거나 그 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모듬별로 기본음렬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30초~1분길이의 12음 음악을 만든다.	12	
		· 모듬별로 만든 12음 음악을 보여주고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하게 한다.	· 자신의 모듬이 만든 12음 음악을 다른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한다.	9	
정리	개념화	· 타 모듬의 발표도 경청하도록 이끌면서 이 시간 공부한 12음 음악에 대해 정리하도록 이끈다.	· 다른 모듬의 발표와 연주도 경청하면서 오 배운 12음 음악에 대해 정리한다.		· 교사는 학생들의 창작과정에서 생긴 실수를 체크하고 보충해주며 더불어 아이디어를 평가한다.
	평가	· 학생들이 이 시간 공부한 12음 기법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였는지 질문을 통해 평가한다.	· 평가지를 작성한다.	2	

(1) 수업의 목적

20세기에 나타난 무조성의 큰 흐름 가운데 필연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12음 기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감상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다.

12음 음악 중에 베르크의 『서정적 모음곡』을 선택하여 지도안을 작성한 이유는 난해하고 복잡한 음렬이 얽혀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지루한 음악이 될 수 있는 12음 음악을 서정적으로 풀어낸 베르크의 작곡 방식 때문이다. 이 곡에서 12음 기법을 사용한 악장은 1악장과 6악장이다. 그 중에서 1악장을 선택한 이유는 템포와 그로 인한 분위기 때문이다. 1악장의 경우 빠른 템포로 곡의 분위기가 밝게 전개되는데 6악장은 곡 전체 악장 중에 가장 느린 악장으로 전개된다. 느려서 지루할 수 있는 6악장 보다 빠른 1악장이 학생들이 곡을 느끼고 이해하기에 수월할 것이라 판단되어 선택하였다. 12음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제목 그대로 곳곳에 담겨있는 작품의 서정성이 학생들의 거부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2) 학습 자료 및 참고 자료

가. 학습 자료

① 12음 기법

12음 기법은 아놀드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무조적 경향이 극단에 이르자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조성의 혼적조차

두에서 서서 많은 후대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주

12음 기법이란 평균율적으로 조율된 음계의 조직적으로 배열하여 곡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된 '기본음렬'과 여기서 파생된 음렬을 사용하여

스인 이기세 가리치 베르크의 『서정적 모음곡』 예로 제시한다.

[기본음렬]

[전위]

[역행]

[역행전위]

작곡가는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열두 개의 각각의 음들은 단 한번만 선택될 수 있다. 이를 '기본음렬(Original)'이라 한다. 이 기본음렬에서는 다. 첫 번째, 기본음렬의 선율 진행을 대칭(Inversion)'가 있다. <악보 1>을 보면 기본음렬 알 수 있다. 이와 대칭인 전위의 첫 진행은 제

행'은 <악보 1-3>에서와 같이 기본음렬의 진행을 거꾸로 돌려놓은 것과 같고, '역행전위'는 <악보 1-4>에서 알 수 있듯이 역행음렬을 다시 전위시킨 것이다.

나. 참고 자료

① 베르크의 『서정적 모음곡』의 전체적 해설 및 1악장 분석

각 악장의 빠르기 진행은 다음과 같다. 1, 3, 5악장은 알레그레토(Allegretto)³⁹⁾, 알레그로(Allegro)⁴⁰⁾, 프레스토(Presto)⁴¹⁾로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2, 4, 6악장은 안단테(Andante)⁴²⁾, 아다지오(Adagio)⁴³⁾, 라르고(Largo)⁴⁴⁾로 점점 더 느리게 진행된다.

베르크가 자신의 작품 『서정적 모음곡』에서 외부에서 가져온 모티브라고 밝힌 것은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3악장의 모티브로 A-B-H-F⁴⁵⁾ 진행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자신의 이름 알반 베르크(Alban Berg)에서 앞 글자에 해당하는 A, B를,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한나 폭스 로베르틴(Hanna Fuchs-Robettin)의 이름에서 H와 F를 조합한 것이다. 두 번째는 4악장에서 알렉산더 첼린스키(Alexander Zemlinsky, 1871~1942)⁴⁶⁾의 『서정적 교향곡(Lyric Symphony)』에서 멜로디를

39) '조금 빠르게'를 뜻하는 이탈리아어의 연주지시어.

40) '빠르게'를 뜻하는 이탈리아어의 연주지시어.

41) '매우 빠르게'를 뜻하는 이탈리아어의 연주지시어. 18세기 초부터 알레그로(Allegro)와 구별되어 그보다 더 빠른 템포를 의미하였다.

42) '느리게-천천히 걷는 것과 같은 빠르기'를 나타내는 이탈리아어의 연주지시어.

43) '안단테보다 느린 템포'를 일컫는 이탈리아어의 연주지시어.

44) '매우 느리게'를 뜻하는 이탈리아어의 연주지시어. 18세기 초부터 일어난다. 강조된 음악은

가져와 사용했다.⁴⁷⁾ 세 번째로 마지막 악장은 수하면서 전체의 진행을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발전시켰다.⁴⁸⁾

곡의 도입부에서 꾸밈 음으로 빠르게 시작한 음렬이 변형 없이 등장하는데 바이올린의 빠른 움직임 부분이 나타나는데 파샷(F#) - 파(F) - 미(E)의 3도 2음 변이가 나타난다. 다시 빠른 부분으로 전개된다. 등장하다가 도샷(C#)과 솔샷(G#)의 5도 올림이 연결된다. 그 후 다시 빠른 부분이 나오는데 샷(C#) - 시(B) - 레샷(D#) - 도샷(C#) - 시(B)의 5도 2음 변이 부분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이 빠르고 느린 부분의 반복 속에 간헐적으로 음정의 높고 낮음의 변화가 빈번히 일어난다. 되면 개방현의 올림으로 미(E) - 미(E) - 미(E)의 완전 5도 화음이 나온다. 도입부에서는 바이올린의 이 시점을 기점으로 비올라가 곡을 이끌어간다. 바이올린이 음정의 급격한 변화와 강세의 표현의 후 선율 진행이 미(E) - 파(F) - 솔(G) - (시(B),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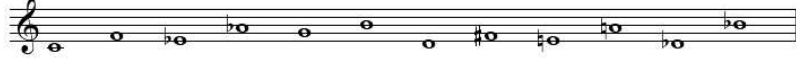
(3) 평가지

학년 반 번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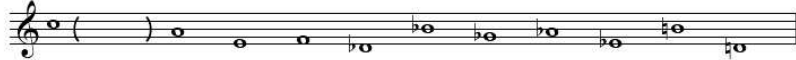
※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 게 기 다 기 버 으 러 으 버 기 이 으 러 시 비 키 으 케 으 기 스

[기본음렬]



[전위]



[역행]



(4) 정리

지금까지 베르크의 『서정적 모음곡』 1악장의 기법을 공부하였다.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 효과의 증진과 도모하기 위하여 창작 수업으로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2음 기법의 기본적인 원리가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되었으므로 다른 작곡 기법에 비해 창작 수업으로의 연계가 용이하다.

둘째, 12음 기법이라는 20세기 음악의 생소한 개념을 만들어 봄으로써 학습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셋째, 난해한 20세기 음악을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수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증진시킨다.

3) 벨라 바르톡(Béla Bartók, 1881~1945)의 『미크로코스모스(Mikrokosmos)』

학습 단원		20세기 음악 감상 (바르톡의 『미크로코스모스』)		학습 주체	고등학교 1학년
수업 목표		1. 학습지를 활용하여 각 곡(125번, 126번, 151번)의 주요한 특징을 구별할 수 있다. 2. 사전 지식이 전무(全無) 한 상태에서의 감상과 곡의 구조와 특징 분석 후 감상할 때의 느낌과 이해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학생들 스스로 파악 할 수 있다.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동기 유발	· 바르톡의 『미크로코스모스』 중 몇 곡을 들려준다. 사전에 곡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들려준다.	· 곡을 감상한다.	4	125번-1분 25초 126번-40초 151번-1분 27초 총 3분 42초
		· 각 곡에 대한 느낌을 발표하도록 이끈다. 음악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 이외에도 전체적인 느낌이나 분위기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느낌을 이야기 한다.(흥겨운 리듬이 많이 나와요, 분위기가 밝아요, 곡이 짧아요. 등)	3	· 감상할 곡의 CD와 오디오 준비.
		· 이번에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세한 설명을 한다. 이 때에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습지를 활용한다. -학생들의 음악적 소양을 고려하여 너무 전문적인 분석 보다는 전체적인 형식 구조와 두드러진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 교사가 제시하는 학습지를 활용하여 곡의 자세한 분석을 한다.	16	· 작품의 전체적인 개관은 참고 자료 ① 참조. · 학습지는 학습 자료 ① 참조.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전개	곡의 특성 인지 및 발견	· 학습지를 나누어 주고 그 안에 정리된 악보와 표를 보면서 곡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이끈다.	· 학습지에 제시된 설명과 악보와 표를 통해 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4	· 작품의 자세한 분석은 참고 자료 ② 참조. · 학습지를 활용함에 있어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특징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감상을 통해 다이내믹이나 리듬 찾기, 형식의 변화에 따른 곡의 변화 찾기 등.	
		· 한곡 씩 설명이 끝나면 곡을 들려준다.	· 한 곡씩 감상을 통해 특징을 스스로 파악해 본다. 때때로 듣지 못했을 경우 다시 활용한 문제들을 풀면서 내 들려 달라고 선생님께 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끈다.(곡을 듣고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쓰는 활동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이 담긴 답안을 유도한다.)			· 한 곡씩 감상을 통해 특징을 스스로 파악해 본다. 때때로 듣지 못했을 경우 다시 들려 달라고 선생님께 요청한다.
		-이 때에는 학습지의 감상을 활용한 문제들을 풀면서 내 들려 달라고 선생님께 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끈다.(곡을 듣고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쓰는 활동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이 담긴 답안을 유도한다.)	· 학습지에 제시된 설명과 악보와 표를 통해 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감상을 통한 특징 파악	· 위의 세 곡을 다시 들려준다. 각 곡의 제목과 특징을 떠올리며 감상하도록 유도한다.	· 곡의 큰 제목인 『미크로코스모스』는 '소우주'라는 뜻이고 총 153개의 소곡으로 이루어진 피아노 연습곡이다. 그 중 이 시간에 감상한 3곡의 제목은 뱃놀이(125번), 변박자(126번), 불가리아 리듬에 의한 6개의 무곡 중 제 4곡(151번)이다.	· 각 곡씩 감상을 통해 특징을 스스로 파악해 본다. 때때로 듣지 못했을 경우 다시 들려 달라고 선생님께 요청한다.	4		
		· 각 곡의 제목과 특징을 상기하며 곡을 감상한다.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정리	토의	· 수업 도입부에 사전정보 없이 곡을 감상했을 때와 분석 후 감상한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듈별로 이야기하도록 이끈다.	· 다시 감상 할 때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어떤 부분이 새롭게 들렸는지 모듈별로 이야기 한다.	7	· 조금이라도 낯선 음악을 접하는 자세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음악에 노출되는 빈도를 높이는 것이다. 더불어 곡의 음악적 특징을 알고 접하게 된다면 학습 효과는 매우 증진된다. 20세기의 새로운 음악을 접할 때도 마찬가지다. 분석을 통한 감상의 효과는 감상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감상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발표	- 들리지 않던 부분이 다시 들을 때 들렸거나, 처음에 들었을 때와 다르게 들린 부분이 있는지 모듈별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 각 모듈에서 이야기 한 것을 발표하도록 이끈다.	· 모듈 안에서 서로 이야기 한 것을 발표한다.	9	
	평가	· 다른 친구가 발표할 때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경청하도록 유도한다. · 곡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과 서로 토의하고 발표한 것을 토대로 오늘 감상한 곡에 대해 정리 하도록 이끈다. 정리하는 방법으로 평가지를 활용한다.	· 자신의 생각과 친구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며 경청한다. · 교사가 설명한 곡의 특징과 자신이 들으면서 느끼고 이해한 생각, 친구들과 토의하고 발표를 통해 공유 하게 된 내용을 정리한다. · 평가지를 작성한다.	2 5	

(1) 수업의 목적

3차시 수업의 감상곡은 바르톡의 『미크로코 연습곡 중 125번, 126번 그리고 151번으로 지도

20세기 음악의 난해함 보다는 조성 체계를 온 새로운 시도를 소개하면서 20세기 음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다. 또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적 이해도를 높이고 을 것이다.

바르톡의 이 곡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 여 특색 있는 각 곡이 1, 2분 내외로 진행되므로 높일 수 있다. 또한 각 곡의 내용과 구성이 학 있기 때문에 20세기 음악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음정이 난해하지 않고 조성의 개념을 완전히 학생들이 곡을 수용하고 이해하기가 수월하다.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 의 곡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어떻게 달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 과정의 일환으 들의 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한다. 그로 하고, 음악을 흥미롭게 감상하는 방법으로 분석 한다.

(2) 학습 자료 및 참고 자료

<125번 '배놀이(Boating)'의 음악 감상 학습지>

학년 반 번 이름

1. 곡의 빠르기는 알레그레토(Allegretto)이고, 전체적인 형식 구조는 다음과 같다.

형식	A	B	A'
마디	1~14	15~34	35~47

2. 이 곡은 배놀이의 정경을 묘사하는 작품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악보는 곡

Allegretto, ♩ - 116

p, sempre legato

듣고 빈 칸을 채워보
가 동일하게 변형 없

왼손의 반복적 진행	물결치는 모습 표현
오른손의 진행	

3. 위의 악보의 왼손과 오른손의 진행에서도 알
이 사용되어진 4도 진행은 바르톡의 음악에서
특은 헝가리 농민 음악의 영향으로 4도 구성의
다.49)

4. 곡을 감상하고 A - B - A' 형식에서 A와 A'
는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단순한 느낌의 표현이

<126번 '변박자(Change of Time)'의 음악 감상 학습지>

학년 반 번 이름

1.

Allegro pesante, ♩ = 250

어보자.

마디	1	2	3	4
박자				

3. 곡을 감상하면서 4마디를 주기로 반복되는 주요 리듬의 진행을 적어보자.

(이 곡은 박자의 반복과 함께 리듬의 반복이 동

다섯 번 등장하는 가운데 리듬진행도 다섯 번
 다의 리듬 진행이 5~8마디, ..., 17~20마디의 리

♪ ♪			
-----	--	--	--

2. 곡을 감상하면서 빈칸의 연주지시어를 채워보자. 제시된 강조음들이 박자의 순환지점을 알려주므로 강조음을 주위 깊게 듣는다면 박자의 순환지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4, 3/4, 3/8, 5/8)의

박자의 순환
 연주 지시어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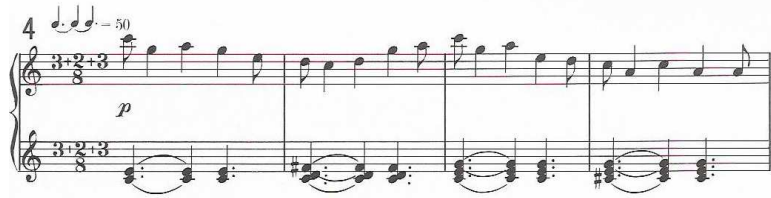
포르테(f) 포르테(f) 피아노(p)

<151번 '불가리아 리듬에 의한 6개의 춤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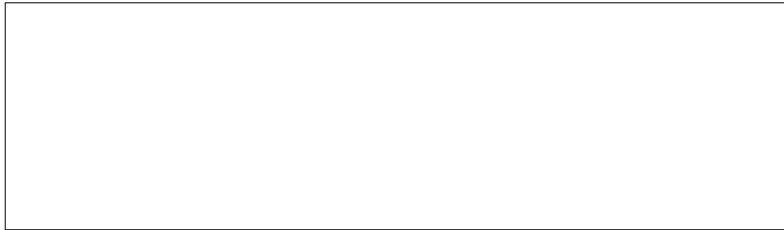
(Six Dances in Bulgarian Rhythm)중 제 4곡'의 음악 감상 학습지>

학년 반 번 이름

1. 이 작품은 '거울 구조'로 작곡되었다. 거울 구조란 어떠한 음악 작품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 거울에 비추인 것처럼 두 부분의 진행이 대칭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주로 형식 구조에 사용된다. 이 곡에서는 전체적인 형식을 비롯하여 박자, 리듬 패턴의 진행 등 다양한 부분에서 거울 구조가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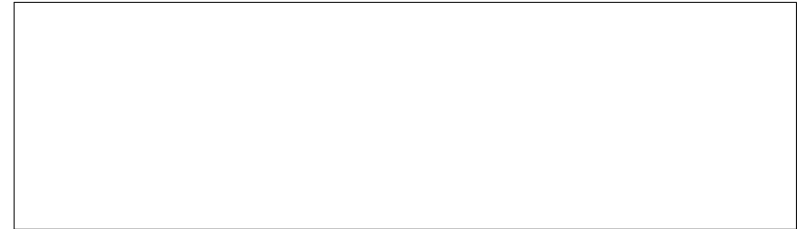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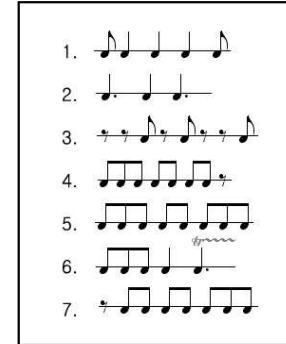


박자 자체에서 거울
된다.)



3. 다음은 이 곡에 등장하는 7개의 주요 리듬

패턴을 찾아보자.



나. 참고 자료

① 『미크로코스모스』의 전체적인 특징

조성은 확실한 조, 애매한 조, 복조 등 구성이 명시되어 있으나 고전, 낭만 시대 음악처럼 조성 안에 곡이 구속되어 있지 않다. 형식은 대부분 피아노 연주와 기교에 관한 곡과 음악 구조에 관한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르톡의 『미크로코스모스』는 그의 작곡 기법에 관한 훌륭한 입문이며 그의 생애 후반 무렵에 완성된 것이다.

처음 3권은 바르톡의 작곡 기법으로서는 초보적인 것이지만 나중의 3권은 보다 실험적인 것이다. 그의 기법에서 조성은 기능적 음조적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빈고전악파의 조성 개념에서 낭만파의 조성 발전을 통해 바르톡의 중심축 체계에까지 그 연속적 진행의 경과를 체계화했다.

바르톡은 음의 처리에 있어 종래의 전통적 조성인 배음렬의 사용에 그치지 않고,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미의 산출로서 황금 분할법을 도입하여 그의 특유한 반음계법으로 작품을 구성한다. 그의 반음계 시스템은 동양의 민속음악과 5음 음계에 뿌리가 있고, 배음렬 시스템은 서양적 사상에서 유래된다. 그의 예술은 민족 음악과 프랑스 인상주의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바르톡의 음악은 동양적 사고방식인 황금분할과 서양적 사고방식인 배음렬 음계의 통합으로서 동·서의 상징적인 만남과 융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⁵⁰⁾

② 감상곡 세 곡의 작품 분석

수업에 사용할 세 곡의 자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125번은 ‘벚놀이(Boating)’라는 제목의 곡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벚놀이의 정경을 묘사하는 곡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이 흥미롭다.

세 음으로 구성된 왼손의 지속되는 상행 선율과 오른손의 반복적인 리듬을 이루고 이러한 반복적이고 여린 왼손의 진행을 왼손의 리듬이 따른다. 이 도입부의 왼손 부분에는 *legato*⁵¹⁾라는 연주 지시어가 있는데 이것은 곡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연주하라는 뜻이다.

고르게 이어가던 왼손의 반복적인 상행 선율이 20마디부터 리듬과 음정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는 리듬과 음정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상당히 불규칙해진다. 20마디부터 디미뉴엔도(diminuendo)⁵²⁾는 약간 느리게 연주하라는 포케토⁵³⁾ 리타르단토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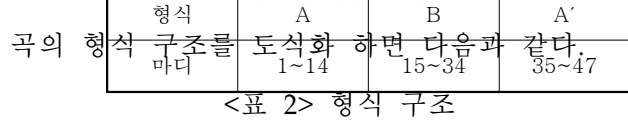
24마디에 아템포(a tempo)⁵⁵⁾가 나오면서 박자도 2/4박자로 변박이 이루어진다. 특징적인 것은 지금까지 왼손이 표현하던 반복적인 리듬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즉, 24마디부터는 오른손의 리듬이 나타나고 왼손의 모습을 표현하고 거기에 도입부의 오른손처럼 리듬이 나타난다.

29마디에서 3/4에서 2/4박자로 변박이 이루어진다. 34마디에서 2/4박자로 변박이 이루어진다. 그 후 양손이 디미뉴엔도(diminuendo)로 진행된다. 34마디에서 2/4박자로 변박이 된다. 역시 34마디에서 2/4박자로 변박이 된다. 역시 34마디에서 2/4박자로 변박이 된다. 느려졌던 템포가 35마디부터 아템포(a tempo)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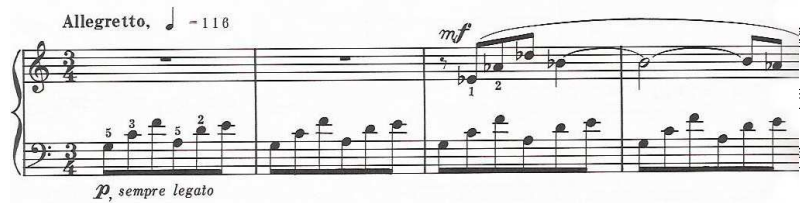
51) sempre는 ‘언제나’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legato는 ‘음들끼리 붙여서’를 뜻하는 이탈리아어의 연주지시어.

52) diminuendo, ‘점점 여리게’를 뜻하는 이탈리아어의 연주지시어.

35마디부터 오른손으로 옮겨갔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상행 진행이 다시 처음과 같이 왼손의 진행으로 나타난다. 38마디부터 앞서 등장했던 것처럼 리듬의 변형이 나타나는데 39마디부터는 라렌탄도(rallentando)⁵⁶⁾가 44마디까지 나타나면서 동시에 43마디부터 44마디까지 디미뉴엔도가 나온다. 그 후 46마디의 잠깐의 강세가 나타났다가 바로 피아니시모(pp)로 곡이 마무리된다. 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규칙적이고도 반복적인 물결의 모습을 편안하게 묘사



<악보 2>

위의 악보는 125번의 도입부이다. 물결의 정적이면서 동적인 느낌을 왼손과 오른손의 조화로 잘 표현하고 있다.

20세기 음악의 현대적 기법으로 자주 사용되 변화시키는 것이다. 126번 '변박자(Change of 변화를 주요 소재로 삼은 작품이다. 총 35마디 품이다. 박자의 변화는 <2/4, 3/4, 3/8, 5/8>의 박자는 <악보 3>



제시된 <악보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곡은 행된다. 이러한 박자의 반복이 5번(20마디까지), 31마디까지 진행된다. 32마디에서 6/8박자가 5/8박자로 진행된다.

곡의 흐름에 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악보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에 알레그로로 는 연주지시어가 적혀있다. 이것은 곡의 끝까지 여 4마디 후 두 번째 박자의 반복이 시작되기 그 음만 특히 세게 연주하라는 스포르찬도(sf)가

롭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4개의 박자가 반복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스포르찬도로 표현되는 왼손의 저음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솔(G)'음을 포함하여 '솔(G),도(C),솔(G),도(C)'가 나오고 마지막 박자의 반복 끝에 즉, 20마디의 마지막 박에서 그 전의 도(C)보다 한 옥타브 높은 '도(C)'를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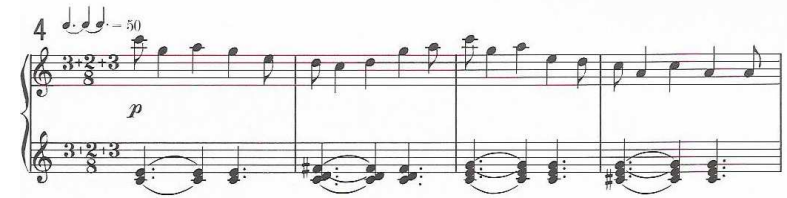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박자의 순환에 따른 특징				
(2/4, 3/4, 3/8, 5/8)의	I	II	III	IV V
박자의 순환				
연주 지시어				
(포르테(f), 피아노(p))	포르테(f)	포르테(f)	피아노(p)	피아노(p) 포르테(f)
강조 음(스포르찬도, sf)	솔(G)	도(C)	솔(G)	도(C) 도(C)

전체적으로 이 곡은 빈번한 박자의 변화를 소재로 간결하고 경쾌하면서도 무게감 있게 곡을 진행시킴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박자의 잦은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시킨다. 경쾌함은 알레그로라는 전체적인 빠르기 때문이고 무게감은 네 개의 박자가 순환하는 지점 바로 앞에 등장하는 강조 음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강조 음의 등장으로 박자변화의 혼란을 최소화 시키고 있다. <표 3>에 제시된 강조 음들이 박자의 순환지점을 알려준다. 리듬의 규칙적인 변화 또한 빈번한 박자의 변화 속에 생기는 감상자의 혼란을 없애준다. <악보 3>에도 나와 있듯이 이 곡의 주요리듬 진행은 (♩ ♩ | ♩ ♩ ♩ | ♩ ♩ | ♩ ♩)이다. 이러한 리듬이 박자의 순환과 더불어 반복된다. 바르톡의 변독이는 작곡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마지막 감상곡인 151번은 '불가리아 리듬에 의한 6개의 춤곡(Six Dances in

파악할 수 있다.

곡의 자세한 분석에 앞서 전체적인 구조는 다 이 곡은 좌우가 완벽히 대칭을 이루는 '거울 구조'라는 (3+2+3)/8의 박자 자체에서도 볼 수 있고 마디 안에서의 리듬 패턴을 보아도 거울구조가 형성된 거울 구조인 A-B-A' 형식을 취하고 있다.



1 쉬운 소재가

제시된 악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첫 번째 마디를 보면 (♩ ♩ ♩ ♩)의 리듬이 등장하였듯이 이 리듬 패턴은 가운데 4분 음표를 거울 구조이다. 이 같은 오른손의 리듬의 진행 왼손의 경우도 가운데 4분 음표를 중심으로 완에서 앞의 4마디는 제시된 악보와 같이 붙임줄이 길게 울린다. 9마디부터 오른손과 왼손의 리

한다. 9마디~16마디까지 오른손의 리듬의 약간의 변형을 제외하면 이 같은 리듬 패턴이 지속되다가 17마디부터 다시 오른손이 처음처럼 리듬 진행을 한다.

아래에 제시되는 표는 이 곡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7개의 리듬 패턴을 도식화 한 것이다.

곡의 20마디~24마디까지는 B부분으로 가는 경과구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25마디~32마디까지 오른손의 진행은 처음의 거울 구조 리듬 즉, <표 4>의 1번 리듬이 다시 등장한다. 이 때 왼손은 오른손 사이사이의 박자를 채우며 <표 4>의 3번 리듬으로

1.

2.

3.

4.

5.

6.

7.

33마디부터는 왼손이 <표 4>의 리듬 패턴 1로 진행되고 오른손은 새로운 리듬패턴 <표 4>의 4번 패턴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진행은 37마디부터 오른손의 변형이 나타나면서 흐트러지는데 44마디부터 새로운 거울 구조의 <표 4>의 5번 리듬이 오른손에서 나타난다. A'로 가기위한 경과구로 51마디~54마디까지 <표 4>의 4번의 역행인 7번의 리듬이 왼손에 사용되는데 이 때 오

왼손 화성의 불규칙한 변화와 오른손의 옥타브 브진행은 곡을 풍성하게 해주는 요소가 된다. 종적으로 좀 더 변형되면서 모호해진다. 그러나 진행은 곡의 끝까지 이어져 나온다.

(3) 평가지

학년 반 번 이름

※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 학습지를 활용하여 이해한 세 곡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각 곡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2가지 이상) ()

- ① 125번은 뱃놀이의 정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 ② 125번의 빠르기는 알레그레토(Allegretto)로 곡의 끝까지 적용된다.
- ③ 126번의 형식 구조는 A - B - A' 이다.
- ④ 126번의 박자의 변화는 2/4, 3/4, 3/8, 5/8로 진행되며 이 같은 박자가 네 번 순환되어 나타난다.
- ⑤ 151번의 거울 구조는 리듬 패턴에서만 나타난다.

2. 곡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들었을 때와 분석 후 다시 감상 했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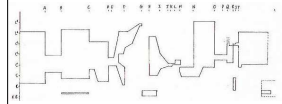
(4) 정리

지금까지 바르톡의 『미크로코스모스』를 활용하였다.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 분석을 통한 각 곡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높음을 스스로 곡에 대한 분석은 음악 감상 학습지를 제작하는 데 제시된 세 곡의 자세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습지는 전문적인 분석의 내용을 모두 다루기보다는 중요한 특징을 뽑아 간략하게 설명하는 학생 스스로가 곡에 대한 이해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4) 죄르지 리게티(György Ligeti, 1923~2006)의 『아트모스페르(Atmosphère)』

학습 단원	s) (1961) 20세기 음악 감상 (음향 음악)		학습 주체	고등학교 1학년
수업 목표	1. 음향 음악을 알고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 리게티의 음향 음악 『아트모스페르』(1961)를 감상하고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교사	학생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p>· 20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음악적 시도 중 하나인 '음향 음악'에 대해 설명한다.</p> <p>-음향 음악이란 20세기 중반 리게티에 의해 널리 알려진 음악으로 뚜렷한 선율 선 보다는 클러스터(음다발)를 활용한 연속적인 음향 흐름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음향 복합체로 구성된 음악이다.</p>	<p>· 음향 음악의 특징을 이해한다.</p>	4	· 음향 음악의 추가 설명은 학습 자료 ① 참조.
개념 이해	<p>-음향 음악을 구성하는 주요 작곡법인 클러스터 기법은 여러 음들을 동시에 연주 했을 때 발생하는 음향복합체를 사용하여 곡을 만드는 기법이다. 이러한 클러스터 기법의 수용은 새로운 방법으로 음악 작품의 구성과 형식을 만든다.</p>	<p>· 음향 음악의 주요 기법인 클러스터 기법에 대해 공부한다.</p>	3	· 클러스터 기법에 대한 추가 설명은 학습 자료 ② 참조.
전개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전개	곡의 특성 인지 및 발견	· 감상곡의 제목 『아트모스페르(Atmosphères)』에 내포된 음악적 혹은 사상적 의미를 알려준다.	· 제목에 내포된 뜻을 이해한다.	3	
		-‘대기’ 혹은 ‘분위기’라는 뜻으로 된가 대기 중에서 부유하는 것 같은 형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윤곽 없이 서로 뒤섞여 하나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비유적으로 어떤 독특한 분위기나 아우라 ⁵⁹⁾ 등을 암시하기도 한다. 즉, 이 곡을 감상할 때 감상자는 각각의 선율의 움직임 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따라가며 감상하는 것이 곡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			
		· 곡을 감상하기 전에 리게티의 『아트모스페르』의 음향의 흐름을 나타낸 그림을 보여주면서 곡이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를 설명한다.	· 그림을 통해 곡 안에서 음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 파악한다.	2	· 스크린 프로젝트.(또는 프로젝션 TV)
	감상	· 그림을 보여주면서 곡을 들려준다.	· 그림을 보면서 곡을 감상한다.	10	· 감상할 곡의 CD와 오디오 준비.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정리	토론 및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상상력을 발휘해 느낌을 적거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유도한다. · 모듈을 나누어 곡을 감상하며 느낀 느낌과 생각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이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을 감상하면서 드는 느낌을 적거나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 자신들이 작성한 종이를 가지고 감상한 느낌을 토론했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과 생각을 적을 종이(예]A4 용지)를 준비 - 교사가 준비해두거나 학생들에게 미리 지참할 것을 사전에 공지.
	개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별로 가장 기발한 생각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씩 정하여 앞에 나와 발표하도록 진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하면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반 친구들에게 발표할 한, 두개의 글(혹은 그림)을 정해 발표한다. 	9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음악적 사고를 통해 창작된 리게티의 음향 음악에 대해 정리한다. -예술에 있어서 발상을 전환하면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가치를 부여 할 수 있다. 일례로 리게티의 『아트모스페르』도 1961년 초연당시 음렬 음악에 익숙해져 있던 평론가들에게는 ‘구조 없는 음악’이라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오히려 이후에는 ‘구조가 아닌 형상’이라는 현대 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작품으로 여겨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시간에 공부한 음향 음악이 무엇인지 알고 그 특징을 정리한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운 것을 정리하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에는 평가지를 활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를 작성한다. 	7	· (3) 평가지 참조.	

(1) 수업의 목적

학생들에게 리게티의 『아트모스페르』를 감실체를 경험하게 하고 음악적 표현의 무한한 수업의 목적이다.

『아트모스페르』는 1960년대 초, 20세기 초·활용한 음렬 음악과 달리, ‘구조가 아닌 형상’이향 음악 작품이다. 작곡가 리게티의 아이디어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적 사고의 폭을 넓히고자

(2) 학습 자료 및 참고 자료

가. 학습 자료

① 음향 음악

음향 음악이란 개별적인 ‘음’들이 음악의 기본리 ‘음향’을 음악적 소재로 활용해 작곡한 음악들의 동시 울림을 통해 나타나는 음의 현상을정지된 듯한 커다란 음향 연속체 속에 미시적재한다. 음향 작곡의 대표적 작곡가는 리Penderecki, 1933~)가 있고, 그들이 사용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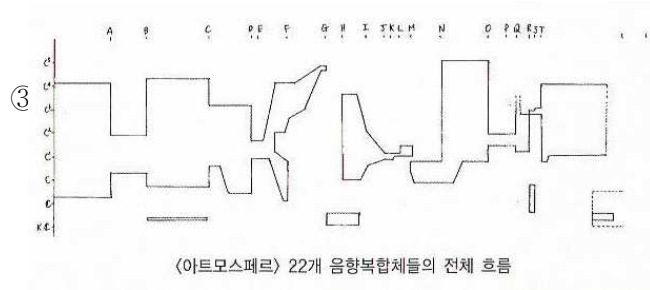
② 클러스터 기법

나타나는 음향 복합체(음다발)를 말한다. 클러스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 화성으로 풀이 되지 않는 여러 음들이 동시에 울리기 때문에 개별적인 음정의 인식이 힘들다.

둘째, 뭉쳐진 음 자체가 하나의 음향으로 존재한다.

이 같은 특징을 가진 클러스터 기법을 사용한 음악을 감상할 때에는 감상자는 음정을 분석하려 하기 보다는 클러스터를 음향 복합체, 즉, 음 덩어리 자체로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



나. 참고 자료

① 『아트모스페르』 작품 분석

타악기를 제외한 대편성 관현악곡인 『아트모스페르』는 1961년 작품으로 리게티 고유의 새로운 형식 형상화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 곡은 전체적으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음향 흐름과 그 속에서 미시적으로

이 작품에서는 그야말로 어떠한 선율도, 리듬도 없이 오로지 음색과 강세, 성부망의 변화로 이루어진다. 22개의 음향복합체들이 있다.

다섯 옥타브 이상의 넓은 음역에 걸쳐 반응들 터로 시작하여, 점차 이들 음향복합체 내부에 가 계속되다가, 고음역의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는 콘트라베이스의 최저음 음향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다.

그 후 현악기들이 넓은 음역에서 장 3도의 좁이처럼 휘몰아쳐가는 부분에 이어, 금관의 들숨과 다시 반응들로 쌓여진 여섯 옥타브에 걸친 클러스터

작곡가는 초고에 22개 음향복합체들의 구체적 해두었는데, 그 마지막에는 19초의 정적이 있다. 피아노 주자의 움직임이 멎은 후에도 한동안 저 허공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곡을

(3) 평가지

학년 반 번 이름

※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 '음향 음악'이란 무엇인가?

2. 음향 작곡을 위한 '클러스터 기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4) 정리

지금까지 리게티의 『아트모스페르』를 통해 20세기 말의 음악 경향도 가운데 특히, 1950년대 이후에 큰 흐름으로 보았다.

학생들에게 곡의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표현 활동이 낯선 음향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첫째, 음향 음악이라는 새로운 음악을 접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표현 활동이 낯선 음향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둘째, 음악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학습의 통로가 된다.

셋째, 이 같은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5) 필립 글래스(Philip Glass, 1937~)의 『해변의 아인슈타인 중 Knee 5(Knee

5 from Einstein on the Beach』 (1976)		20세기 음악 감상 (미니멀 음악)		학습 주체	고등학교 1학년
학습 단위					
수업 목표		1. 1960년대 시각 예술로부터 발달된 미니멀리즘(Minimalism)과 미니멀 음악(Minimal Music)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다. 2. 글래스의 『해변의 아인슈타인 중 Knee 5』(1976)를 감상하고 패턴과 반복의 특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동기 유발	· 수업 시간 이전에 미니멀리즘이란 용어를 들어 보았는지 만약 들어보았다면 어디서 들었고 그 뜻은 무엇으로 알고 있는지 질문한다.	· 미니멀리즘에 관해 알고 있던 것들을 이야기 한다.	4	
전개	학습목표 인지	· 1960년대 시각 예술로부터 발달된 미니멀리즘에 대한 설명을 한다. -미니멀리즘은 패턴과 반복만이 존재하는 예술이다. -모리스 루이스, 프랭크 스텔라, 도널드 저드 등 미니멀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미니멀 아트에 대해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 미니멀리즘에 대해 알고 미니멀 아트 작품을 감상한다.	8	· 미니멀리즘의 추가 설명은 학습 자료 ① 참조. · 학생들에게 보여줄 모리스 루이스, 도널드 저드, 덴 플래빈 등 미니멀아트 작가들의 작품 준비. 이 작품들과 그것의 설명은 학습 자료 ②, ③ 참조. · 스크린 프로젝트.(또는 프로젝트션 TV)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전개	개념의 이해	· 음악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려준다. -항상 반복하는 듯 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지는 사하라 남부의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인도의 음악적 특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미니멀 음악은 미술에서와 마찬가지로 패턴과 반복을 그 기본 구성요소로 갖고 있다.	· 미니멀 음악의 전반적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감상곡을 들을 준비를 한다.	5	· 미니멀 음악의 예로 보여줄 테리 라일리의 『C 장조(In C)』의 악보는 학습 자료 ④ 참조. · 미니멀 음악의 추가 설명은 학습 자료 ⑤ 참조.
	감상	-대표적 작곡가로는 스티브 라이히(Steve Reich, 1936~), 테리 라일리, 필립 글래스 등이 있다. · 글래스의 미니멀 음악 『해변의 아인슈타인 중 Knee 5』를 들려준다. -반복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며 들도록 유도한다. · 감상 중 찾은 반복적인 특징을 메모하도록 이끈다.	·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패턴과 반복이 나타나는지 찾으면서 감상한다. · 찾은 특징들을 각자의 공책에 메모해 본다.	5	· 감상할 곡의 CD와 오디오 준비.
					3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전개	곡의 특성 인지 및 발견	· 음악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반복적인 패턴은 무엇이었는지 질문한다.	· 교사의 질문에 대답한다.(구성요소는 노래와 말 그리고 바이올린 소리가 있었고, 반복적인 요소로는 숫자를 반복해서 세는 것과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전자오르간-악기 이름은 정확히 몰라도 소리의 존재는 알 수 있음- 소리가 들렸다- 등) 자신이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9	· 곡에 대한 추가 설명은 학습 자료 ⑥ 참조.	
		· 이와 같은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면서 곡의 진행과정과 특징을 보충 설명한다.	· 곡의 특징을 이해한다.	8		
	개념화 및 생활화	· 감상한 곡과 같이 패턴의 변형이 있는 반복이 존재하는 음악이 있고, 단 하나의 패턴만을 반복한 음악도 존재함을 알려준다.				
		· 오늘 배운 미니멀리즘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유도한다.	· 수업시간에 배운 미니멀리즘의 이해를 바탕으로 미니멀 음악에 대해 정리한다.	2		
	·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이 일상과 멀리 있는 동떨어진 예술이 아님을 알게 하고 더불어 미니멀 음악에의 관심을 유도한다.	· 미니멀리즘이 일상과 동떨어진 예술이 아님을 안다.	1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정리	평가 및 과제	· 질문을 통해 이 시간 배운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 질문은 평가지를 활용한다. · 평가지 2.번의 질문은 과제로 제시한다.	· 평가지를 작성한다. · 과제를 숙지한다.	5	· (3)평가지 참조.
		이러한 과제를 제시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시키고 둘째, 20세기의 예술 사조가 우리의 일상 속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셋째, 학생들 자신도 그러한 예술 표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1) 수업의 목적

학생들에게 20세기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에 대해 미술 작품의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 작품 분석을 통해서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다. 더불어 수업 후 학생들이 일상 속에 미니멀 아트와 미니멀 음악을 보고 듣고 나아가 느끼고 즐길 수 있게 된다면 학습 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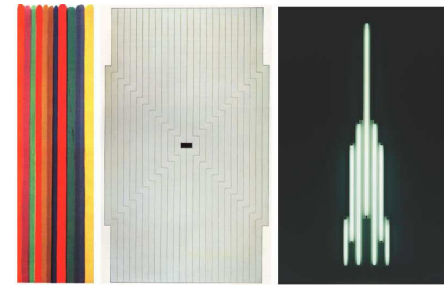
(2) 학습 자료 및 참고 자료

가. 학습 자료

①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이란 1960년대 말 주로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시각 예술과 음악 분야의 운동을 말하는데 극도로 단순한 형태의 표현과 즉자적⁶²⁾·객관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ABC 아트라고도 불리는 미니멀 아트는 러시아의 화가 카지미르 말레비치가 흰색 바탕에 검은색 4각형을 그린 구성(1913)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던 현대 미술의 환원주의⁶³⁾적 경향이 절정에 이른 것이다. 액션페인팅이 너무 개인적이고 비 실체적이라고 믿는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예술 작품에는 그 자체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주장했다. 회화에서는 평평한 표면에 크고 단순화된 기하학적인 형태, 정확하고 날카로운 윤곽, 밀칠하지 않은 캔버스에 원색을 직접 사용하는 것 등이 특징이다. 그것은 서정적이거나 수학적인 구성도 화가의 개인적 표현이 되기 때문

에 거부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하학적 추상과 달리 리튬유나 플라스틱, 판금(板金), 알루미늄 등을 재료로 하여 원색의 공업용 물감을 고르게 채색한 극도로 단순한 형태를 띠고 이루어져 있다.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미니멀리즘 작가들도 비표현적인 작품을 시도했다.⁶⁴⁾



개할 미니멀아트 작품
(3>65)



미니멀리즘 작품

③ 미니멀아트 작품 설명

<그림 10-1>은 모리스 루이스(Morris Rouis)의 『이입(moving in)』(1961)이라는 작품으로 색 띠들을 병렬 배치하여 무지개 효과를 내고 있다. 그의 작품의 특징은 물감과 캔버스의 완전한 일체를 통해 회화에서의 환영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시도에 있다. 그러므로 루이스의 작품에서는 물체로서의 그림과 형상으로서의 그림이 완전히 통합된다. 즉, 루이스에게 있어선 그림이 곧 형상이 되므로 형상과 바탕의 구분이 없어져 공간적 환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10-2>는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의 『기저 6마일(Six mile bottom)』(1960)인데 반복되는 줄무늬가 어느 지점에 멈추느냐에 따라 캔버스의 크기와 작품의 형태가 결정된다. 이러한 스텔라의 특징은 '성형 캔버스(Shaped canvas)'라고 불리며 후에 이것을 작품에 활용하는 많은 작가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작품들은 회화를 시적인 상징성을 띠고 있는 하나의 장면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물체로서 보는 냉정한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캔버스 자체가 하나의 오브제가 되는 셈이다.

<그림 10-3>은 댄 플래빈(Dan Flavin)의 『V. 타틀린을 위한 기념비』(1966-9)인데, 그는 가공하지 않은 네온 튜브들을 단순히 집합시켜 놓은 일련의 작품들을 만든 미니멀리스트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바 본다는 것의 중립적인 즐거움, 즉, 비예술(No Art)을 지향하였고 어떤 식으로든 조각하거나 구축하지 않은 네온튜브들의 집적물을 작품으로 제시하였다. 그의 작품은 그 자체 원래 빛을 발하는 물체로서 아무것도 상징하거나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그저 존재할 뿐인 것이다.

<그림 11-1>은 도널드 저드(Donald Judd)의 1975년 작 『무제』이다. 특징은

무한한 연장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옆의 (Ellsworth Kelly)의 『휴스턴 3연작(Houston tr 리스 루이스와 마찬가지로 형상과 배경의 이원 다. 커다란 색면을 특징으로 하는 켈리의 작품 다. 여기엔 언어적, 회화적 과장법이 거부되고 도 불가능하다.

<그림 11-3>은 칼 앙드레(Carl Andre)의 『81 에 만들어졌다. 이것은 미술관 바닥에 깔린 81 는 것이다. 종래의 조각의 수직성 혹은 직립성 만들었다. 구리판(Cu)과 철판(Fe)을 가로 세로 아 만든 것이다. 이 조각 작품 역시 일정한 단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위들은 서로 교환이 가

된다.⁶⁶⁾



Terry Riley, In C (1964)

935~)의 『C 장조(

위의 악보는 미니멀 음악의 예로 첨부한 작품으로, 총 53개의 패턴 중 16개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라일리의 작품처럼 패턴이 변형되어 반복되는 미니멀 음악이 있고 때로는 단 하나의 패턴만으로 반복을 진행시키는 미니멀 음악도 존재한다.

⑤ 미니멀 음악

미니멀 음악은 미술에서와 마찬가지로 패턴과 반복을 기본으로 진행되는 데 이 때의 반복은 소수의 음악적 재료들로 구성된 단순한 동기(motive)들이 계속적인 운동성을 가지고 회전하게 된다. 또한 단순한 동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쉼표나 악센트 등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로 인하여 변화를 주기도 하고, 절정을 포함한 작품 전체를 구성하여 확장하며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미니멀 음악에서의 작품은 미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작곡가의 주관적인 개입을 최대한 억제한다. 음악의 소재인 개개의 음들은 독자적인 의미를 포함하며 이러한 소재 속에는 앞으로 진행되어질 과정의 형태가 담겨져 있다.⁶⁷⁾

시기적으로 보면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고 1970년대 이후에는 유럽에도 상륙한다. 미니멀 음악의 전반적인 원칙은 항상 반복하는 듯 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지는 사하라 남부의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인도의 음악적 특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 음악은 짧게 단락 지어진 조성적인, 여러 멜로디 부분들(Patterns)이 똑같이 반복되거나, 가볍게 바뀌어 반복되는데, 부분들은 매번 서로 다르게 짝을 지어 동시에 울린다. 미니멀 음악은 리듬적으로 매우 명확한 박자를 갖고 있다. 화성의 원칙은 없으며 기본패턴에 첨가음들이 붙는다. 7도,

2도 등 강한 음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 3도, 6도 등 약한 음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⁶⁹⁾ 작곡가의 주관성 축소는 미니멀 음악의 특징으로, 세 개 구분된 재료의 효과로 강조되었다.

미니멀리즘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성을 지우고, 객관성의 추구 방식 자체가 매우 개성적이거나 주관적이지 않게 불구하고 미니멀 음악은 하나의 통일된 방식의 개성 있게 시도되었다.⁷⁰⁾

⑥ 『해변의 아인슈타인 중 Knee 5』 작품 분석

이 곡을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제목 『해변의 아인슈타인(Einstein on the Beach)』의 ‘Knee 5’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앞의 『해변의 아인슈타인(Einstein on the Beach)』은 오페라의 제목이다. 이 곡의 제목 안의 ‘Knee 5’는 ‘Knee 1’부터 ‘Knee 5’까지의 ‘Knee Plays’가 존재한다. 즉, ‘Knee 1’부터 ‘Knee 5’까지 있는데, 그 중 ‘Knee 5’가 이 곡이다.

이 곡을 흥미롭게 하는 특징적인 요소는 대략 첫째, 미니멀 음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세는 것 자체를 활용한 점이다. 물론 그 숫자에 규칙도 존재한다. 2:3:4로 분할되는 박자의 터닝 정확히 일치한다.

67) www.um.ak.co.kr 최소음악(Minimal Music). (2006. 5. 현재)

68) 리스, 『최소음악』, 서울: 도서출판 창, 2006, 102쪽. 『최소음악』, 서울: 도서출판 창, 2006, 102쪽.

69) 리스, 『최소음악』, 서울: 도서출판 창, 2006, 102쪽. 『최소음악』, 서울: 도서출판 창, 2006, 102쪽.

70) 리스, 『최소음악』, 서울: 도서출판 창, 2006, 102쪽. 『최소음악』, 서울: 도서출판 창, 2006, 102쪽.

둘째, 음정이 있는 반복이 나타난다. 이 경우 인성에서 악기로 음악을 이끄는 주제가 바뀌어도 기본적인 음정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변형된다. 즉, 조성적인 분석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과 변형이 계속되지만 그 음정의 기본 틀은 a - G - C⁷¹⁾코드로의 진행이다.

셋째, 위의 경우와 달리 곡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음정이 없는 반복이 존재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곡을 들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바로 말 자체인 언어를 지속시키면서 곡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다. 여자와 남자가 말을 하는데 여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듯이 내뱉는 말을 하고, 남자1은 여자보다도 훨씬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한다. 남자2는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공간감이 느껴지도록 말을 해 나간다.

이 곡의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곡을 구성하는 소리는 ‘말(Speaking)’을 제외하고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여성 합창(Women’s chorus), 바이올린(Violin), 전자 오르간(Electric organ)이다.

시작은 전자 오르간과 여성 합창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전자 오르간은 A - G - C음의 하행진행이 울림을 갖고 등장한다. 이 같은 전자 오르간의 진행은 곡의 끝까지 계속된다. 여성 합창의 경우를 살펴보면 C(A) - D(G) - E(C)⁷²⁾음의 진행이 반복되는데 이 때의 가사가 다름 아닌 숫자(Numbers)이다. 이 여성 합창에서 주제가 등장하고 반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를 하나의 ‘주기’⁷³⁾로

71) 여기서 소문자 a코드는 단3화음을 대문자 G, C코드는 장 3화음을 나타낸다.

본다면 최초 주기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One two three four(1 2 3 4)/one two three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1 2 3 4 5 6 7 8)

이 같은 진행을 하나의 개별적인 주기로 보았을 때 되고, 모든 변형은 2번씩 반복되므로 2개의 주기(2-Set)로 본다면 총 10번의 반복이 진행되는 것이 된다. 이 때의 주기를 10번 반복하는 것은 주기(최초의set)를 제외하면 9번의 변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변형은 ‘원(One)’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으로

3번의 ‘원(One)’이 등장한다. 따라서 이 ‘원(One)’이 등장하는 주기를 3번씩 반복하면 총 10번의 반복이 진행되는 것이다.

주기세트	I	II	III
최초주기	1 2 3 4	1 2 3 4 5 6	1 2 3 4 5 6 7 8
변형1(1,2)	1 2 3 4	1 2 3 4 5 6	1 2 3 4 5 6 7 8
변형2(1,2)	1 2 3 4	1 2 3 4 5 6	1 2 3 4 5 6 7 8
변형3(1,2)	1 2 3 4	1 2 3 4 5 6	1 2 3 4 5 6 7 8
변형4(1,2)	1 2 3 4	1 2 3 4 5 6	1 2 3 4 5 6 7 8
변형5(1,2)	1 2 3 4	1 2 3 4 5 6	1 2 3 4 5 6 7 8
변형6(1,2)	1 2 3 4	1 2 3 4 5 6	1 2 3 4 5 6 7 8
변형7(1,2)	1 2 3 4	1 2 3 4 5 6	1 2 3 4 5 6 7 8
변형8(1,2)	1 2 3 4	1 2 3 4 5 6	1 2 3 4 5 6 7 8
변형9(1,2)	1 2 3 4	1 2 3 4 5 6	1 2 3 4 5 6 7 8

<표 5> 전반부 곡단의 변형

제시된 표의 부분이 ‘원(One)’이 빠지는 부분

전자 오르간과 여성합창이 이처럼 진행되는 가운데 여자의 말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시점은 여성 합창이 <변형2-I>을 부를 때 시작되고 <변형4>의 첫 번째 주기까지 계속된다. 그 후 두 번째 주기 즉, <변형4(2)-III>부터 나지막하게 말을 지속하던 여자도 여성 합창이 부르는 가사(Numbers)를 같이 말하게 되는데 이 때의 숫자는 여성 합창과 같이 음정이 있는 진행은 아니고 말의 연장이다. 간간히 쉽과 숫자 세기가 <변형5>의 끝까지 나타난 후 <변형6>에서 다시 앞서 등장했던 말이 재등장한다. 그 후 여성 합창의 <변형9>까지 말(Speaking)과 숫자(Numbers)가 번갈아 나타난다. 남자의 말하는 아주 작은 목소리도 <변형5>에서 등장하는데 곡이 끝날 때까지 반복된다. 크리스토퍼 놀스(Christopher Knowles)가 지은 '나는 지구의 움직임'을 느낀다(I feel the Earth Move.)'를 쉽 없이 되풀이한다.

9개의 변형이 있었던 여성 합창은 음악에 새롭게 등장하는 바이올린이 시작되면서 소강상태를 갖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가사는 숫자(Numbers)에서 솔페지(Solfège)⁷⁴로 바뀌고 음정은 그대로 진행되면서 여성 합창은 다시 등장한다. 위 성부의 Do, Re, Mi(상행)와 아래성부의 La, Sol, Do(하행)가 그것이다. 박자 패턴은 앞부분의 2:3:4에서 1:1:2로 빨라지는데 6/8박자로 카운트 할 수 있다.

바이올린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사무엘 존슨(Samuel M. Johnson)이 쓴 '연인(Two Lovers)'이라는 글을 낭독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비교적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연설하듯이 우렁차게 말을 하는데 이 말(Speaking) 역시 곡이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

후반부의 새로움이랄 수 있는 바이올린과

여성 합창의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Women's chorus (여성합창)	(do re mi)(do re mi)	(do re mi)(do re mi)
	(la sol do)(la sol do)	(la sol do)(la sol do)
Violin (바이올린)	(a a' a'')(a a' a'')(a a' a'')(a a' a'')	(b b' b'')(b b' b'')(b b' b'')(b b' b'')
Speaker(말)	Speaking-----	

Women's chorus (여성합창)	(do re mi)(do re mi)	(do re mi)(do re mi)
	(la sol do)(la sol do)	(la sol do)(la sol do)
Violin (바이올린)	(c c' c'')(c c' c'')(c c' c'')(c c' c'')	(b b' b'')(b b' b'')(b b' b'')(b b' b'')
Speaker(말)	-----<표 6-2>-----	

Women's chorus (여성합창)	(do re mi)(do re mi)	(do re mi)(do re mi)
	(la sol do)(la sol do)	(la sol do)(la sol do)
Violin (바이올린)	(a a' a'')(a a' a'')(a a' a'')(a a' a'')	(a a' a'')(a a' a'')
Speaker(말)	-----	

<표 6-3>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올린의 구조는 확연한 거울 구조임을 드러낸다. 표에는 첨가된 이 계속되어 온 전자 오르간의 소리와, 중간막한 말(Speaking)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패턴의 반복이 진행되다가 위 <표 6-3>의 마지막 테마가 한 번 더 나온 후 모든 성부가 동시에

나. 참고 자료

① 필립 글래스

작곡가 필립 글래스는 1937년생의 미국 작곡가이다. 시카고 대학(수학, 철학 전공. 학사(1956))과 줄리어드(작곡전공. 석사(1961))에서 공부하고, 유럽(프랑스 파리)에 건너가 나디아 블랑제(Nadia Boulanger)⁷⁵⁾에게 작곡을 배웠다. 1966년에 뉴욕에 돌아와 여러 예술분야의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아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이는데, 1968년에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해주는 필립 글래스 앙상블을 갖게 된다. 대표작으로는 『12파트의 음악(Music in Twelve Parts)』(1971~1974)와 『글래스웍스(Glassworks)』(1982), 『오리온(Orion)』(2004), 그리고 4시간 이상이 걸리는 오페라 『해변의 아인슈타인(Einstein on the Beach)』(1976)과 간디를 주인공으로 한 오페라 『삿티아그라하(Satyagraha)』(1980), 스티브 라이히를 위한 곡이라고 밝힌 『두 쪽(Two Pages)』(1969) 등이 있다. 글래스는 또한 영화음악 작곡가로서도 활동을 하는데 『캔디맨(Candyman)』(1992)을 비롯하여 달라이라마의 삶을 다룬 영화 『쿤둔(Kundun)』(1997)과 짐 케리 주연으로 잘 알려진 『트루먼 쇼(The Truman Show)』(1998) 그리고 『디 아워스(The Hours)』(2002) 등이 있다.⁷⁶⁾

(3) 평가지

학년

※ 다음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1. 미니멀리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 ① 1960년대 말 주로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예술 운동을 말한다.
- ② 미니멀 아트는 액션페인팅의 선구자였다.
- ③ 미니멀 음악의 대표적 작곡가는 필립 글래스이다.
- ④ 미니멀리즘은 고도의 연구와 실험의 예술이다.
- ⑤ 미니멀 아트와 미니멀 음악은 서로 관련이 없다.

2.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니멀리즘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미니멀리즘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미니멀리즘의 예도 포함 가능함. 예) 미니멀리즘의 예(미니멀 음악, 미니멀리즘 미술, 미니멀리즘 문학 등)

(4) 정리

지금까지 미술 작품들을 통한 미니멀리즘의 이해를 바탕으로 미니멀 음악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학생들에게 미니멀리즘이 일상과 멀리 있는 예술이 아님을 알게 하고, 수업 후에도 흥미와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학생들에게 20세기에 나타난 예술의 흐름 중 빼놓을 수 없는 미니멀리즘을 소개하면서 미술 작품들을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시작된 시각 예술을 바탕으로 발전된 사조이다. 따라서 그러한 시각 예술의 예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미니멀리즘에 관한 학습 효과를 증대하기 위함이다.

둘째, 시각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청각에만 의존하는 음악 예술의 난해함을 줄이고, 더불어 학생들의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이다.

학습 단위		20세기 음악(6)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의 『4분 33초』(우연성 음악)		학습 주제	연도
수업 목표		1. 케이지의 우연성 음악에 대해 학습하고, 그의 작품 『4분 33초』(1952)에 내포된 뜻을 이해할 수 있다. 2. 음악에 대한 나아가 예술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사고의 확장을 도모한다. 3. 모듈별로 1분~2분 분량의 음악적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다.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이 시간에 배우게 될 음악은 그동안에 다루었던 20세기 음악 보다 훨씬 파격적인 음악을 듣게 될 것을 암시한다. · 교사가 직접 케이지의 『4분 33초』를 들려준다. · 작품에 대한 느낌을 발표하도록 이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연 어떤 음악을 듣게 될지 기대한다. · 선입견 없이 감상한다. ·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1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공연할 피아노.(음악실 피아노 사용) · 『4분 33초』의 지시 악보는 학습 자료 ① 참조. · 스크린 프로젝트.(또는 프로젝트 TV)
	학습목표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곡이 우연성 음악의 대표적 작품임을 알리고 우연성 음악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우연성 음악은 작곡가가 어떤 작품에서 아무리 정교하게 의사표시를 한다고 해도 연주자의 개성, 그 당시의 환경요인 및 감정 상태로 인해 연주에 우연적 요인인 끼어들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곡가는 대략적인 음악 윤곽을, 또는 개략적인 음악 아이디어만 제시해주고 그 개현과정은 연주 당시의 우연적 즉흥성에 맡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곡이 우연성 음악이었음을 알고 우연성 음악의 특징을 이해한다. 	4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전개	곡의 특성 인지 및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지의 『4분 33초』가 바로 이런 우연성 음악임을 알려준다. · 이 작품에서 작곡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한 것인지 질문해본다. · 평소 음악을 들을 때 항상 수동적이었던 관객(학생)들이 오히려 이 곡의 능동적인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묵이 어떻게 음악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 질문에 대답한다. · 이 곡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연주자의 침묵 속에 존재하는 관객(혹은 주위 환경)의 비선형적인 소리(소음)도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상 전환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국 케이지의 『4분 33초』는 4분 33초 동안 연주공간에서 벌어지는 관객이 만들어내는 소리 즉, 환경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소리들로 이루어지는 작품이었음을 알게 한다. · 이 작품의 영향을 받은 다른 예술 작품들을 소개한다. - 로버트 라우센버그는 이미지와 색채가 전혀 없는 단순한 캔버스 그림을 그렸고 백남준은 이미지가 전혀 없는 하얀 화면의 1시간짜리 영화 『영화를 위한 참선』을 만들었다. · 백남준의 『바이올린 독주』와 『피아노포르테를 위한 연구』를 감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들이 내는 소음이 이 곡의 구성 요소였음을 안다. · 『4분 33초』의 영향을 받은 라우센버그와 백남준의 작품을 감상한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분 33초』의 추가 설명은 학습 자료 ② 참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남준의 『영화를 위한 참선』 사진 자료는 학습 자료 ③ 참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올린 독주』와 『피아노포르테를 위한 연구』의 사진 자료와 그것의 설명은 학습 자료 ④, ⑤, ⑥ 참조.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전개	창작 및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한다. · 음악에 대해 나아가 예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이끈다. · 발상의 전환과 사고 확장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감상한 후 느낀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구상할 때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서로 협동하는 것을 중요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별로 간단하면서 독창적인 작품(음악, 퍼포먼스, 음악 포함 퍼포먼스 다 가능함)을 구상하게 한다. · 각 모듬별로 1분~2분 사이의 작품을 구상하도록 한다. · 이 때에는 작품을 구상의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즉, 수업의 공간, 시간적 범위를 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자신의 모듬과 다른 모듬의 작품을 공연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 구성원끼리의 의견의 모아 하나의 짧은 작품을 만든다. · 객상을 두드리는 리듬으로 만든 퍼포먼스, 교실 밖(복도)에서 노래 부르며 교실 창문으로 넘어 들어오는 퍼포먼스 등 모듬별로 자신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한 작품을 만든다. · 자신의 모듬에서 창작한 작품을 발표하고 다른 모듬의 작품을 감상한다. 	10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교수-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정리	개념화 및 평가	· 서로 다른 모습의 공연에 대해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게 된 예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리하도록 한다.	· 다른 친구들의 공연을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 예술에 대해 가지게 된 새로운 개념을 정리한다.	3	· (3) 평가지 참조.
		· 우연성 음악에 대한 간단한 평가로 수업을 마무리한다.	· 평가지를 작성한다.	3	

(1) 수업의 목적

20세기 현대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음악의 개념, 예술의 개념 확장을 위한 목적이다. 더불어 백남준의 두 작품 『바이올린 위한 연구』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작 수업

(2) 학습 자료 및 참고 자료

4'33"	I 가. 학습 자료	지시 악보
	TACET ⁷⁷⁾	
	II 2'40"	
	TACET 『4분 33초』의 지시 악보	
III 1'20"	<악보 6>	
	TACET	

② 『4분 33초』의 설명

1951년에 만든 『4분 33초』는 연주자가 등장하지 않는 4분 33초간 피아노 연주 없이 앉아 있는 후 일

으로 우연성 음악의 가장 극단적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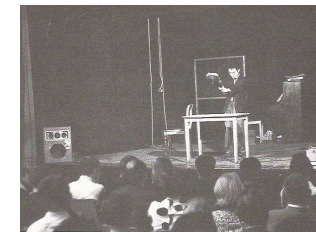
이 곡의 악보를 보면 보표나 음표는 없고 숫자만이 써있는데, 이 숫자는 모두 세 개의 악장으로 된 이 작품 각 악장의 소요시간이며 이 세 수를 모두 합치면 4분 33초가 된다. 그리고는 악보에 음표 대신에 침묵을 지키고 있으라는 지시가 되어있다.⁷⁸⁾

지시된 시간동안 연주자는 무대 위에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아야 한다. 결국 연주자는 4분 33초 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야 하기 때문에, “음악에는 소리만 있을 뿐”이라는 케이지의 소신과는 모순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케이지에 따르면 소리에는 악보에 지시된 소리 즉 작곡가의 의도가 반영된 소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후자의 역할과 기능을 경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곡가의 의도가 담긴 소리를 완전히 없앴으로써 악보에는 기록되지 않은 나머지 소리들을 체험할 수 있다.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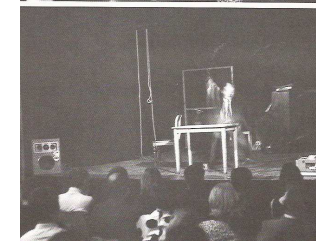
연주자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음악회장에서는 냉·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기계소리, 음악회 프로그램 넘기는 소리, 청중들이 웃거나 몸을 움직이는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가 나게 마련이고 4분 33초 동안의 이러한 소리 자체가 이 작품 된다.⁸⁰⁾



◎ 『시각과 소리를 위한 침묵』 사진 자료
<그림 12>⁸¹⁾



백남준이 1965년 새영화 축제에
『시각과 소리를 위한 침묵』을 사진으로 찍은



『독주』의 사진 자료
<그림 13>⁸²⁾

<그림 13>은 백남준의 『바이올린 독주』인데, 1962년 독일의 뒤셀도르프 미술 대학에서 공연한 것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다.

⑤ 『피아노포르테를 위한 연구』 사진 자료



⑥ 『바이올린 독주』와 『피아노포르테를 위한 연구』
『바이올린 독주』는 바이올린을 들어올리는 데 1초가 걸리는 공연이다.

『피아노포르테를 위한 연구』는 무대에서 쇼를 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하고 피아노를 꺼내어 내동댕이치고 무대 바닥에 둘러엎고, 이를 잘라내고 관중의 머리에 샴푸를 들이부어 극적인 연장으로 전화를 걸어 “퍼포먼스는 끝났습니다.”

백남준이 이 작품을 처음 시도한지 일 년 뒤인 1960년(Stockhausen, 1928~)의 『원작(Originale)』⁸⁴⁾이 공연된다. 하지만 백남준은 공연 때마다 자신의 연을 다르게 진행하였다.

<그림 14>는 백남준의 『피아노포르테를 위한 연구』(1960)이다.

나. 참고 자료

① “우리가 어디를 가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은 대부분 소음이다. 우리가 소음을 귀찮아한다면 소음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힌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들으려 한다면 소음이 얼마나 환상적인 것인가를 드디어 알게 된다. 소음이야말로 경이로운 음악인 것이다. 가장 자연적인.”⁸⁵⁾

“사람들은 서로 쑥덕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밖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웃지 않았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

② 『1952년 초연된 『4분 33초』에 대한 케이지의 설명』⁸⁶⁾ “사람들은 들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침묵이라고 생각했던 내 작품 『4분 33초』는 우발적인 소리들로 꽂 차 있었다. 첫 악장에서는 밖에서 휘몰아치는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악장에서는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빗방울 소리를, 그리고 세 번째 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걸으면서 내는 모든 종류의 흥미 있는 소리들을...만들었다.”⁸⁷⁾

③ 『4분 33초』의 미학적 의미

이 작품은 전통적인 작품의 개념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시도로, 청중을 의도적으로 분노케 만들었다. 이 작품의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 할 수

있다.

첫째, 이 작품은 제도화 된 예술에 대한 비판과 청중들이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일격을 가함(“연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둘째, 환경 자체를 의식화하려는 케이지의 의도가, 예술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다.

셋째, 동양철학, 특히 선(禪)철학의 영향을 받은 케이지의 소리이며 언어나 문자로 표현되기 이전의 불심(佛心)과정이 일치되는 세계관을 깨닫는 것이라고 본 케이지를 케이지는 ‘침묵의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다.

넷째, 이 작품은 관객을 작품의 주제로 활용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 작품의 내용은 피아니스트에 의해 연주되지만, 침묵 혹은 관중의 기철을 채워지기 때문이다. 관객들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관객들의 참여로 완성된 것이다.⁸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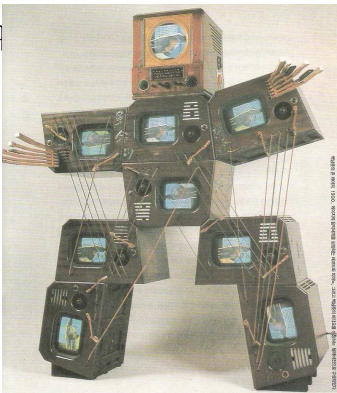
④ 라우센버그와 백남준의 행동에 대한 케이지의 비판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는 『4분 33초』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완전히 빈 순한 캔버스였다. 백남준 역시 이미지가 전혀 없도록 화면을 만들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혹자들은 ‘행동 예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케이지에 따르면 라우센버그와 백남준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넓은 활주로 같은 것이고 열거

은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먼지와 그들은 늘 한자리에 머물지 않지만 점차 쌓여져 그림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백남준의 영화는 표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흰 자막만이 스크린에 가득하게 비추면서 관객이 주인공이 되는, 케이지 자신의 컨셉트와 유사하다고 강조한다.⁹⁰⁾

⑤ 『영화를 위한 참선』의 미학적 의미

케이지는 『4분 33초』가 환경의 소리를 연출하는 퍼포먼스와 같다고 설명한다. 백남준의 이미지 없는 영화는 어두운 방에서 밝은 빛만 스크린에 비추어지고 관객은 투사된 빛 사이로 먼지만 보게 된다. 결국 쌓이는 것은 먼지이고 이 먼지는 그냥 먼지가 아닌 우리의 허구적 기대와 관념을 설명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⑥ 백남준의

1990년에 만든 백남준의 『존 케이지』라는
준과의 관계가 돈독했음은 알려진 바이다. 둘은
히, 케이지는 백남준에게 음악이 옥타브라는 제
이 아니라 심지어 소음까지도 음악 속에 포함사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었다
케이지의 음악세계를 상징하는 레코드와 피아
상징하는 텔레비전으로 구성되었다.

(3) 평가지

학년 반 번 이름

※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 우연성 음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2가지 이상) ()

- ① 우연성 음악은 미국의 존 케이지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 ② 전통음악에 비해 연주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된다.
- ③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케이지의 『4분 33초』가 있다.
- ④ 일반적 특징은 소재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 ⑤ 1960대 시각 예술에서 시작되어 발전되었다.

(4) 정리

시기적으로 20세기 중반(1952)에 작곡된 작품은 이유는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케이지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 중에 가장 파격적인 시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케이지의 음악에 대한 개념이 미숙한 학생들이 이러한 케이지의 20세기 현대 음악의 바른 이해를 하기가 힘들 수 있다. 수업의 감상곡들을 학습한 후 케이지의 음악을 사고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백남준의 아방가르드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현재에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 여겨지지만, 관을 가지고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 발표될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둘째, 예술이라는 것이 학생들 자신의 현실과 니라 자신들도 예술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수업 후반부에 창작활동을 넣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수동적인 감상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창작하는 작품 활동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수업 참여도가 높아진다.
 둘째, 작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협업을 통해 창의성을 높인다.
 셋째, 작품 활동 자체가 학생들의 독창적인 표현을 장려한다.

3. 평가

지금까지 20세기의 음악적 흐름의 개관과 음악 감상의 개념 및 음악 감상 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수업지도안에 활용할 곡선정의 이유를 밝히고 작품 혹은 작곡가에 대한 교육적 의의와 음악적 의의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20세기 음악의 수업지도안을 6차시에 걸쳐 진행하였다. 조성과 비조성의 절묘한 조화, 12음 음악, 피아노 연습곡을 활용한 현대적 시도, 음향 음악, 미니멀 음악, 그리고 우연성 음악까지 20세기 전반(全般)에 나타난 여러 음악적 시도를 다루었다.

6차시에 걸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유의할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차시 수업에서는 아이브스의 『대답 없는 질문』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20세기 음악에 쉽게 입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수업의 유의점은 20세기 음악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쉽고 거부감 없이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을 도모하고 20세기 음악의 바른 이해를 이끌어야 한다.

2차시 수업은 베르크의 『서정적 모음곡』 중 1악장의 기본음렬을 통해 12음 기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12음 음악을 만들어 봄으로써 학습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수업에서의 유의점은 이러한 창작 활동 중 발생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업의 교사가 잘 이끌어야 하는 점이다.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면서 학생들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차시 수업은 바르톡의 『미크로코스모스』 중 아노 연습곡을 활용한 현대적 기법을 소개하면서 그렇지 않은 감상 보다 곡을 인지하고 이해하도록 들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수업에서 석을 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인 주체가 되게 하여 학습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학습지의 내용은 교과보다는 곡에서 중요한 점을 뽑아내어 그것을 하도록 하였다.

4차시 수업은 리게티의 『아트모스페르』를 활용하도록 하였는데, 이 수업에서의 유의점은 학형식의 음악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이에서는 개념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5차시 수업에서는 글래스의 『해변의 아인슈타인』 미니멀 음악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작품의 설명을 통해 미니멀리즘을 이해하고 그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점이다.

6차시 수업은 우연성 음악을 케이지의 『4분』 하였다. 더불어 백남준의 아방가르드 전위 예술 연계를 시도하였다. 이 수업에서 유의할 점은 장을 유도하기 위해 소개하는 일련의 자료와

확한 설명으로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본 수업지도안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학생들에게 새로운 내용을 정확히 전달시키고 이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충분한 사전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수업 참고 자료의 작성에 있어서 시간의 제약 상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하거나 혹은 축약해서 설명해야 하는 부분까지도 필요에 따라 자세한 해설 첨가하였음을 밝힌다.

작곡가와 작품	특징
1. 아이브스의 『대답 없는 질문』 (Unanswered Question)	무조적 경향의 극단인 12음 기법을 활용하여 작곡하였지만 베르크 특유의 서정성을 내포하고 있어 12음 음악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2. 베르크의 『서정적 모음곡』 (Lyrische Suite)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미니멀 아트의 특성과 연관지어 미니멀 음악을 공부하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많다.
3. 바르톡의 『미크로코스모스』 (Mikrokosmos)	창의성과 실험정신이 탁월하여 학생들의 음악적 사고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선정한 작품이다.
4. 리게티의 『아트모스페르』 (Atmosphères)	창의성과 실험정신이 탁월하여 학생들의 음악적 사고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선정한 작품이다.
5. 글래스의 『해변의 아인슈타인 중 Knee 5』 (Knee 5 from Einstein on the Beach)	창의성과 실험정신이 탁월하여 학생들의 음악적 사고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선정한 작품이다.
6. 케이지의 『4분 33초』 (4' 33")	창의성과 실험정신이 탁월하여 학생들의 음악적 사고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선정한 작품이다.

도식화 하면 다음과

시간	작품
2차시	아이브스의 『대답 없는 질문』, 바르톡의 『미크로코스모스』
3차시	『대답 없는 질문』, 베르크의 『서정적 모음곡』, 리게티의 『아트모스페르』
4차시	『대답 없는 질문』, 『아트모스페르』, 글래스의 『해변의 아인슈타인 중 Knee5』, 케이지의 『4분 33초』
5차시	『대답 없는 질문』, 『서정적 모음곡』, 『아트모스페르』, 『해변의 아인슈타인 중 Knee5』, 『4분 33초』

본 연구의 수업지도안의 6차시의 수업을 모두 가장 높다. 하지만 실제 수업의 적용에 있어서 약 감상 수업에 6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경우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때 곡을 선택하여 수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정리해본다.

<표 8> 2, 3, 4, 5차시로 수업 지도 시

<표 8>의 2차시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 『대답 없는 질문』과 『미크로코스모스』이다. 이 모형은 20세기 초반 새로운 양식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말에 등장할 것인지를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1차시 위에 현대적 시도를 한 앞의 두 곡으로 구성하였다.

3차시로 수업 진행을 할 경우 단순한 20세기

는 몇 개의 대표적 양식의 흐름을 파악하는 수

로운 음악적 시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4차시의 모형부터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대답 없는 질문』으로 20세기 음악에 입문한 뒤 음향 음악, 미니멀 음악, 우연성 음악 등 20세기 중·후반의 일어난 새로운 음악적 시도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5차시로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20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음악적 흐름들을 다루었다. 더불어 베르크와 케이지의 곡으로는 감상 수업 이후 창작 수업으로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자가 제시한 6차시에 걸친 수업지도안을 연계하여 진행하였을 때 학습 효과는 가장 높아진다. 하지만 수업 실제에 있어 그 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20세기 음악 감상 부분은 그 어느 시대의 음악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은 미래의 음악의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주체가 될 것이고 교사들은 이러한 잠재적 음악가들의 감상의 지평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Ⅲ. 결론

본 논문은 음악 감상 수업에서 20세기 음악을 통한 학생들의 음악적 감상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는 20세기 음악의 개념과 음악 감상의 개념 및 음악 감상 교육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둘째, 수업지도안에 활용할 곡선정의 이유를 논한 교육적 의의와 음악적 의의를 언급하였다.

셋째, 20세기 음악을 활용한 감상 수업지도안 구성과 비조성의 절묘한 조화, 12음 음악, 피아노 음악, 음향 음악, 미니멀 음악, 그리고 우연성 음악 등 20세기에 나타난 여러 음악적 시도를 다루었다.

넷째, 수업지도안을 틀에 맞추어 짜고 추가할 부분들을 학습 자료와 참고 자료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다섯째, 각 지도안의 끝에 평가지를 첨부하여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6차시에 걸친 수업 지도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차시 수업에서는 아이브스의 『대답 없는 질문』을 중심으로 20세기 음악에 쉽게 입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차시 수업은 베르크의 『서정적 모음곡』 중 『모음곡』을 중심으로 20세기 음악의 기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시 수업은 바르토크의 『미크로코스모스』 중 『미크로코스모스』를

그렇지 않은 감상 보다 곡을 인지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4차시 수업은 리게티의 『아트모스페르』를 활용하여 음향 음악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였다.

5차시 수업에서는 클래스의 『해변의 아인슈타인 중 Knee 5』를 통해 미니멀 음악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6차시 수업은 우연성 음악을 케이지의 『4분 33초』를 통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작성된 지도안을 토대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20세기 음악을 활용한 감상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충분한 사전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20세기 음악에 대한 교사들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더불어 세미나 등을 통한 재교육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스크린 프로젝터 등의 제반 기기와 양질의 감상을 위한 고성능 음향기기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같은 수업 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20세기의 다양한 음악을 가르치고 전달함에 있어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학습지 및 평가지 이외에도 실제 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수·학습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본 논문을 통해 작곡가, 연주자, 혹은 감상자로서 현재와 미래의 음악 활동의 주체 될 학생들이 20세기 음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으로 그들의 음

되길 기대한다.

학교 음악 교육 현장에서는 20세기 음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계화된 지도안을 개발하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20세기 음악에 대한 연구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김문자, 노영해, 박미경, 이석원, 허영한 공저,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심설당, 2001
- 김정길 편저, 「20세기의 새로운 음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김진균, 「음악예술의 이해」,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3
- 레너드 번스타인, 「하버드대학의 여섯 강좌-대답없는 질문」, 박종문 역, 주우(主友), 1982
- 석문주, 「교실에서의 음악 감상」, 교육과학사, 1999
- 오희숙, 「20세기 음악」, 심설당, 2004
- Eric Salzman, 김혜선 역, 「20세기 음악」, 도서출판 다리, 2001
- 이석원, 「현대음악-아방가르드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20세기 작곡가 연구회 지음, 「20세기 작곡가 연구Ⅲ」, 음악세계, 2003
- 이용우, 「백남준, 그 치열한 삶과 예술」, 열음사, 2000
-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0
- 이희경, 「리게티, 횡단의 음악」, 예술, 2004
- 황성호, 「전자음악의 이해」, 현대음악출판사, 1993
-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8

논문 및 학회지

- 장지영, “교과서의 20세기 음악 분석과 수업에의 적용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은혜, “반복성(Repetition)의 관점에서 본 미니멀리즘의 「Piano Phase(1967)」과 「Violin Phase(1967)」의 관점으로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현옥, “20세기 음악 기법을 적용한 창작 수업의 실행과 학습자의 음악적 활동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남예, “음악감상교육에서 20세기음악 활용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효정, “효과적인 20세기 음악 감상교육을 위한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연경, “20세기 현대음악의 이해를 위한 창조적 접근 방법 연구-한국음악교육학회, 1995
- 이은경, “음악 감상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감상교육을 위한 방법 연구-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은영, “Steve Reich의 Drumming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의 음악적 특성에 대한 연구-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손은정, “고등학교 현대음악 지도 방법 연구-한국음악교육학회, 1995
- 신갑섭, “개념 탐구 중심의 감상활동이 음악의

원 석사학위논문, 2001

최미화, “청소년들의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음악 감상 교육 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최종임, “음악 감상 교육에서 20세기 음악 활용에 대한 연구-고등학교 음악수업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황은혜, “20세기 음악 감상 교육에 대한 연구-중학교 음악 수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참고사이트

지식채널 e 「아버지의 아들, 찰스 아이브스」, www.ebs.co.kr, 2006. 4.

<http://www.geocities.com/al6an6erg/lyric.html>, 2006. 5.

http://en.wikipedia.org/wiki/Lyric_Suite_%28Berg%29, 2006. 5.

엠펙스 백과사전 www.empas.com, 2006. 5.

<http://my.dreamwiz.com/mijk/minimalism.htm>, 2006. 5.

최소음악(Minimal Music) www.um-ak.co.kr, 2006. 5.

http://em.wikipedia.org/wiki/Philip_Glass, 2006. 5.

ABSTRACT

Study on 20th Century Music Use in Education. - Focused on 10

Depa

Gr

Su

We can define the music before 20th century as diverse inspiration using the abstractive notion. The definition of music, however, becomes vague in the age of 1900s. Certainly the above definition is not some music, but there comes several new music with the change of music trend. This is why the music definition and finally goes in advance.

This paper intends that youths understand the 20th century music and expand their range of understanding of 20th century music, concerning the necessity of music appreciation education.

All 6-hour-long guidance proposal is composed of 『The Unanswered Question』 by Charles Ives (1874~1954), 『Lyrische Suite』 by Alban Berg (1885~1935), 『Mikrokosmos』 by Béla Bartók (1881~1945), 『Atmosphères』 by György Ligeti (1923~2006), 『Knee 5 *from Einstein on the Beach*』 by Philip Glass (1937~), and 『4 ' 33 "』 by John Cage (1912~1992).

This study *focuses on wide experiences, out of indifference and blind rejection, for students through various musical experiences.* This kind of study should be kept on. That will naturally lead to active class activity based on these studies and several programs made based on them.